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73호 【루계 제26047호】 주체107(2018)년 6월 22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인터네트홈페지에 게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4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의 전문을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가 1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라》의 전문을 도이췰란드반제연단이 6일 인터네트홈페지에 올렸다.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당으로 건설하신 불멸의 령도

여러 나라에서 업적토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토론회가 그이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4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슈, 네팔, 우간다에서 11일과 13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방글라데슈자티야당 총비서, 방글라데슈언론인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을 비롯한 발언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하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업적을 격찬하였다.

그들은 최후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김정일각하의 사상리론은 절대불변의 진리로, 영원한 승리의 기치로 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 위원장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에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정일각하의 사상과 위업을 그대로 계승하신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쳐가신다.

하여 조선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보장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계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업적은 인류력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우간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찬양하고 아프리카나라들은 자주성을 실현하고 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조선의 모범을 따라배우고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13일 쏘련공산당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건설하신 절세위인의 불멸의 당령도사를 칭송하고 김정일동지의 업적은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조선로동당과 더불어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대대로 위대한 수령들을 모신것은 조선인민의 가장 큰 행복이며 행운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놀라운 성과들을 창조하고있다, 국제무대에서 조선의 위용은 더욱 빛나고있으며 전세계의 초점이 조선에로 집중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사 설

두벌농사, 세벌농사에 힘을 집중하여 알곡생산을 더욱 늘이자

사회주의전야에서 밀보리수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경제건설대진군으로 들끓고있는 속에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모내기전투를 성과적으로 결속한 기세드높이 앞그루작물수확에 떨쳐나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 실천을 통하여 우월성이 확증된 앞뒤그루와 겹재배에 의한 두벌농사, 세벌농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알곡 대 알곡, 알곡 대 감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알곡 대 남새, 알곡 대 공예작물재배를 과학적으로 알심있게 하여 토지리용률과 농사의 집약화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두벌농사, 세벌농사를 잘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농업정책이고 방침이다.

두벌, 세벌농사는 알곡증산의 중요한 예비의 하나이다. 우리가 식량을 자급자족하자면 당의 뜻대로 농업부문에서 집약농법을 적극 장려하고 단위면적당 알곡수확고를 계속 높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경지면적이 제한된 우리 나라에서 두벌, 세벌농사를 대대적으로 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포전길, 농장길을 쉬임없이 걷고 걸으신 우리 수령님들이시였다. 협동농장들을 찾으시여 두벌농사, 세벌농사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도록 고무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은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펼쳐놓으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확고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여러가지 두벌농사, 세벌농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토지리용률과 농사의 집약화수준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사회주의협동벌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농업부문에서 두벌, 세벌은 물론 네벌농사까지 짓는 혁신적성과들이 이룩되고있으며 다수 확농장, 작업반대렬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두벌, 세벌농사에서 지금은 매우 중요한 때이다. 농작물비배관리에 힘을 넣는 동시에 앞그루작물수확과 뒤그루작물심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야 하는것으로 하여 한해농사중 품이 가장 많이 드는 시기이다. 현실은 농촌의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지원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승리에 자만을 모르고 계속혁신, 계속전진, 련속공격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알곡증산성과로 빛내일 드높은 열의를 안고 당면한 앞그루작물수확과 뒤그루작물심기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영농전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농촌들에서 앞그루로 심었던 밀, 보리를 익는 족족 가을하여야 한다.

수확적기를 바로 정하고 력량을 집중하여 일정계획을 무조건 수행함으로써 뒤그루작물심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을을 너무 일찍 하면 낟알이 채 여물지 못하여 여문률과 천알질량이 떨어지며 반대로 지나치게 늦게 하면 이삭목이 쉽게 부러지거나 습해를 받아 싹이 나오면서 낟알히실을 가져오게 된다는것을 잘 알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앞그루감자수확을 다그쳐야 한다. 감자캐기를 일찍 하거나 늦게 하는 경우 정보당 수t의 소출이 감소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수확을 적기에 와닥닥 해제껴야 한다. 땀흘려 생산한 낟알들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며 수매를 제때에 하여야 한다.

뒤그루작물심기를 적극 따라세워야 한다.

농촌들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하여 앞그루작물을 수확하는 즉시 논밭갈이를 다그쳐야 한다. 논에서는 앞그루작물을 수확한 포전들에 대한 논갈이와 물대기, 써레치기, 모내기를 제때에 진행하여 뒤그루벼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밭에서는 밀, 보리, 감자 등을 수확하는 차제로 밭갈이, 이랑짓기와 같은 선행공정을 다그쳐 강냉이, 콩을 비롯한 뒤그루작물심기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전선에서 농기계는 무장장비와 같다. 영농공정을 최적기에 질적으로 수행하고 적은 로력과 시간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이룩하자면 현대적이고 능률높은 각종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지난 시기 농기계의 리용률을 높인 단위들의 경험은 농산작업을 기계화하면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알곡생산을 더 늘일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도, 시, 군, 협동농장들에서는 수확기를 비롯한 능률적인 농기계들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내각과 농업성을 비롯한 해당 부문, 단위들에서 농촌들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특히 수확해놓은 밀, 보리, 감자수송조직을 짜고들고 가공을 따라세움으로써 인민들이 앞그루농사의 덕을 보게 하여야 한다.

협동벌은 흙냄새가 배인 일군들을 부르고있다.

도, 시, 군, 협동농장일군들은 자신들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놓여있다는것을 뼈에 새기고 포전들에 달려나가 전투작전과 지휘를 패기있게 하며 새벽문을 남먼저 열고 헌신의 구슬땀을 더 많이 흘려야 한다. 두벌농사, 세벌농사에서 성과를 거둔 단위들은 례외없이 일군들이 조직사업을 대담하게 창조적으로 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킬 때 불리한 조건에서도 훌륭한 결실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현실에 몸을 푹 잠그고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면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게 조직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농업부문 기술일군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기술일군들은 기상기후조건과 앞그루작물의 작황상태를 따져가며 수확적기와 뒤그루작물심는 시기를 정해야 한다. 특히 뒤그루모내기와 강냉이, 콩심기를 질적으로 하기 위한 기술지도에 품을 들여야 한다.

농사의 주인은 농업근로자들이다. 모든 농업근로자들은 혁명열, 애국열, 투쟁열로 심장을 불태우며 당의 두벌농사방침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바쳐야 한다. 말은 과제를 그날로 질량적으로 수행하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 분조, 자기 작업반, 자기 농장이 앞그루작물수확과 뒤그루작물심기를 성과적으로 끝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특히 보리장마가 예견되는데 맞게 철저한 대책을 세워 애써 거두어들인 낟알이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 및 근로단체일군들은 포전들에 나가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리고 사회주의경쟁조직과 총화평가사업을 잘하여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농촌지원자들은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 앞그루작물수확과 뒤그루작물심기를 다그쳐 끝냄으로써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하여야 할것이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더 큰 박차를!

선전선동의 위력한 포성으로 경제건설대진군을 추동

각지 당조직들에서

온 나라 천만군민이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경제건설대진군에 총력을 다하고있는 지금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박력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사상전선에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전세대들처럼 혁명적대고조로 당중앙을 옹위하는 돌격전의 기수,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당정책관철전에서 자신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자각한 각지의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들끓는 전투현장들에 나가 대중을 경제과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화선식으로, 공세적으로 벌리고있다.

개천시당위원회 일군들이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난 5월 중순 통진협동농장으로 달려나간 시당책임일군은 당세포위원장들과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들에게 이번 전원회의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구체적으로 해설해주고 앞으로의 선전선동사업방향도 알려주면서 그들이 오늘의 격동적인 시기에 자기들이 지니고있는 사명과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도록 하였다. 작업의 실천에는 여러가지 정황에 따르는 포전선동에 대한 합평을 진행하면서 선전선동사업을 알곡생산목표수행에로 지향시켜나가도록 방도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었다.

그리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도서들과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선동원일지, 속보용지 등을 넣은 선동함과 포전방송기재, 음향증폭식메가폰을 비롯한 선전선동기재들의 준비정도와 가동정형을 알아보고 미흡한 점들은 바로잡아주면서 그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부부장이상 일군들을 농장들에 파견하여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선동원, 5호담당선전원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농장원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당면한 영농전투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리였다. 이런 조직정치사업에 의해 지금 시산의 모든 협동농장 포전마다에서는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도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제강국건설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화선식정치사업을 기백있게 벌리고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소식에 접하고 배수리직장에 나간 당위원회의 일군은 기능공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의 대통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정책을 깊이 새겨주었다. 한편 배수리에 필요한 자재들과 로동보호물자들을 제때에 마련해주어 그들이 부속품들의 정밀도를 보장하고 제품가공에서 혁신을 일으켜 세소어업선단의 고기배수리를 앞당겨 끝낼수 있게 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이 직장에서 창조된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경험토론회와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여 다른 단위들에서도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아래당조직들에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직관선동을 비롯한 다양한 선전선동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이 나날에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려는 대중의 정신력이 비상히 높아져 방대한 배수리목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련합기업소는 지난 5월 집중어로전에 진입할수 있는 만단의 태세를 갖추게 되였다.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는 당일군들속에는 옹진광산 초급당위원회 일군들도 있다.

침수된 갱복구전투장에 많은 후방물자를 마련해가지고 나간 초급당위원회의 일군은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에 관통되여있는 근본핵, 기본원칙인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갈데 대한 내용으로 정치사업을 진행하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로동자들을 이끌어 어렵고 힘든 갱복구전투를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낼수 있게 하였다. 또한 소대별, 갱별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우수한 대상들을 속보판, 영예게시판을 통해 적극 소개선전하는 방법으로 경쟁의욕을 북돋아줌으로써 광산적으로 많은 소대들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게 하였다.

이들뿐이 아니다.

녕변군당위원회와 중화군당위원회 일군들, 121호림업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한 많은 당일군들이 들끓는 전투현장에 나가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비상히 높여주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관철에로 힘있게 추동하는 각지의 당일군들의 이런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에 의해 지금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대고조전투장들에서는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본사기자 허일무

매일 많은 밀보리를 수확

황해남도에서

황해남도에서 밀보리수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한결같이 떨쳐나 밀보리수확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생산은 시기성을 요구하는것만큼 영농준비를 제때에 철저히 하고 씨뿌리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 군당위원회들에서는 선전선동수단들을 총동원하여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기세를 돋구어주며 협동벌이 알곡증산투쟁으로 끓어번지게 하고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시, 군의 협동농장들에서 애써 지어놓은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말끔히 거두어들이기 위한 일정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경제조직과 지휘를 혁신적으로, 전투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일군들은 들끓는 협동벌에 내려가 앞채를 메고 달리면서 밀보리수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주기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있다.

도안의 협동농장들의 일군들은 뒤그루모내기와 농작물비배관리, 밀보리수확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맞게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들고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기어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농업근로자들은 협동벌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밀보리수확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끼고있다.

재령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밀보리수확을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두몫, 세몫씩 해제끼며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안악군의 협동농장들에서 밀보리수확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남다른 자각과 열정은 농업근로자들을 혁신에로 부르고있다. 뜨락또르와 탈곡기들의 수리정비를 끝낸 협동농장들의 일군들은 밀보리를 제때에 실어들이는 사업과 낟알털기를 동시에 내밀도록 하고있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배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밀보리수확에서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른아침이면 남먼저 포전으로 달려나가 이신작칙하는 일군들의 모습은 농업근로자들을 분발시키고있다. 농업근로자들은 그날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한 땀을 바치고있다.

신천군, 연안군을 비롯한 다른 군들에서도 밀보리수확을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그리하여 도적인 밀보리수확실적이 계속 오르고있다.

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짧은 기간에 밀보리수확을 해제낄 기세로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파기자 박철

2단계 생산공정현대화 마감단계

평양화장품공장에서

평양화장품공장에서 2단계 생산공정현대화가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있다.

2단계 현대화는 화장전용색연필생산공정과 눈등분포장공정, 화장도구생산공정 등 이빠진 공정들을 확립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화장품에 대한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우리 당의 높은 뜻에 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공업부문에서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원료, 자재보장대책을 세워 생산을 활기있게 내밀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장의 일군들은 2단계 생산공정현대화를 위한 단계별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일군들은 새로 확립해야 할 생산공정들과 그에 필요한 설비의 종수, 대수를 확정하고 경공업성 경공업설계연구소와 협력하여 공정설계를 짧은 기간에 완성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시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며 50여종에 달하는 새 제품개발을 다그치면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화장도구생산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불과 한달 남짓한 기간에 여러대의 설비제작과 설치를 끝내고 지금 갖가지 화장품가방과 화장붓생산을 진행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고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을 비롯한 과학, 교육부문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2단계 생산공정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화장전용색연필생산공정과 눈등분포장공정확립에 필요한 설비제작을 맡아나선 평양기계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피타는 탐구의 노력을 기울여 설계를 완성하고 설비제작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도 향수의 종수를 늘일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훌륭히 관철하기 위하여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치면서 주입기, 혼합기를 비롯한 수십대의 설비제작을 다그쳤다.

김일성종합대학,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렬한 전투를 벌려 여러 생산공정확립에 필요한 설비제작을 제일먼저 질적으로 끝내였다.

우리 나라 화장품공업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려는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2단계 현대화공사에 달라붙은 교원, 연구사들의 불타는 열정에 의하여 며칠전 90여종에 150여대에 달하는 설비제작이 전부 결속되였으며 지금 설치전투가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본사기자 리철옥

기적소리 높이 화력탄수송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기관차대 평천화력대대에서— 본사기자 최충성 찍음 —서평양

총진군대오를 추동하는 자력자강의 기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국, 전민이 혁명적인 총공세, 경제건설대진군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우리에게는 가장 위력한 무기인 자력자강의 정신이 있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조국땅 그 어디서나 이 위력한 무기를 높이 든 장엄한 철의 대오가 폭풍노도치고있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승리에서 더 큰 승리에로!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을 우리 인민은 이런 억척불변의 신념과 결사의 의지로 용감무쌍히 헤쳐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가져야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도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헤쳐온 자력자강의 길, 승리와 영광의 행로가 가슴뜨겁게 되새겨진다.

사회주의강국에로의 길은 오직 하나 자력자강에 있음을 우리는 조용한 서재에서가 아니라 가슴벅찬 현실속에서 불굴의 투쟁으로 체험하였다.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식으로 만들어야 더욱 소중하고 빛난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위대한 혁명실천으로 천만의 심장에 새겨주신 철의 진리이다.

몇해전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첨단기술이 도입된 새 세대 전기기관차를 더 많이 만들어냄에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고 기업소에서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기업소자체의 힘으로 우리 식의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생산한다는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였다.

허나 지하전동차는 반드시 우리의것이여야 하며 최고이여야 한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력자강의 신념은 곧 무한대한 힘을 낳게 하는 원동력이였고 기적창조의 원천이였다.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시던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번에 이룩된 성과는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두뇌에 의거하고 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동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세상에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하늘에는 우리가 제작한 비행기들이 날고 지하에서는 우리가 만든 전동차가 달리게 되였다고, 자신께서 지하전동차개발생산을 대단히 중시한것은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들과 애국적인 과학자, 기술자들처럼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철리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인민의 행복을 꽃피워줄 설계도를 펼쳐주시면서도, 현대화의 동음 울려퍼지는 공장들과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건설장들을 찾으시여서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의 것을 창조할데 대하여 그토록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남의 힘과 기술을 도입한 현대화, 다른 나라 설비들을 그대로 가져다놓는 현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인 력량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에 의거한 현대화이라고 자력갱생의 심원한 뜻을 철리로 새겨주시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심혈을 우리 어찌 다 전할수 있으랴.

정녕 자력자강의 원천은 곧 자기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것에 대한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이기에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원료, 자재로 만든 조국의 귀중한 재부가 하나하나 늘어날 때면 더없는 기쁨을 찾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오늘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의 투쟁모습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준다.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은 보통의 상식으로써는 접어들수도 해낼수도 없는 방대한 공사였다.

막대한 로력과 자재, 자금이 요구되는것은 말할것도 없고 상상을 초월하는 자연과의 대결전을 치르어야 하는 너무나도 아름찬 공사였다.

그러나 강원도사람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억세게 심어주신 자력자강의 신념으로 수력발전소건설사에 없는 공법들을 받아들이고 대담하게 실천하였으며 걸음걸을 결사의 각오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갔다.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면 먼저 눈에 띄는것이 있다. 언제에 새겨진 자력갱생이라고 쓴 대형글발이다.

이 글발만 보아도 당의 의도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속에서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였는가를 잘 알수 있다.

완공된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신 그날 그 대형글발을 보시며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천만의 심장을 쿵쿵 높뛰게 한다.

자력갱생!

설한풍이 휘몰아치던 백두밀림에서부터 장장 수십성상 우리 혁명의 승리의 대명사와도 같은 글발이였다.

그 글발을 가리키시며 정말 힘이 난다고, 이 발전소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며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틀어쥐고 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준 발전소,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슴배여있는 발전소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을 깨뜨릴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강원땅에 능력이 대단히 큰 발전소를 또 하나 건설한 강원도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위대한 생활력을 실천으로 증명한 불굴의 투사들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고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하나의 창조물을 보시여도 이처럼 천만의 심장속에 자력자강의 신념을 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강원땅에서 울린 자력자강의 승전포성은 온 나라에 메아리쳤다.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 할수 있으며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 불굴의 신념이 활화산처럼 터져오른 만리마의 고향 려명거리.

력사의 기적은 위대한 령도자가 안아오는것이며 우리 인민의 거대한 정신력, 무한대한 자강력의 폭발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력과 의지의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활짝 꽃펴나게 될 새 거리건설을 선포하시면서 려명거리가 건설되면 우리의 교육자, 과학자, 인민들에게 문명한 문화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인민의 거리가 또 하나 생겨나게 될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려명거리건설의 선포, 이것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인민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려실수 있는 대용단이였다.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불러오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는 려명거리건설자들로 하여금 그 어떤 어려운 과업도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무조건 관철하는 완강한 공격기질, 한계를 모르는 무한대한 정신력을 용암처럼 분출하게 하였다.

《걷는자는 비키라, 만리마속도 떠진다.》고 웨치며 아찔한 70층 초고층에 발판을 매달고 건설장의 《수리개》가 되여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한 건설자들과 무려 1 000여개의 계단, 높이만도 200여m나 되는 작업장을 하루에 거의 열번씩, 그것도 수십kg이나 되는 물동을 지고 오르내린 《건설마라손》에 대한 이야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닌 자력자강의 정신력은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짓부시며 짧은 기간에 려명거리를 일떠우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게 하였다.

려명거리의 완공으로 세계는 주체조선의 존엄과 본때를 다시금 보았고 그 어떤 경제제재와 압박속에서도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보다 큰 승리를 향해 노도쳐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렇다.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의지에 의하여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라는 신념이 활화산처럼 타번지는것이 우리 조국의 경이적인 현실이다.

시대와 력사가 전진하는데 따라 환경과 조건은 달라질수 있지만 자기 힘을 믿고 제힘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체조선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우리 천만군민은 위대한 당의 품에서 주체사상을 만장약한 자강력의 강자들이다.

자력자강은 구호를 웨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오직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방식으로써만 성취할수 있다는것을 혁명의 준엄한 폭풍우속에서 뼈속깊이 체득한 불굴의 투사들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에 관통되여있는 근본핵, 기본원칙도 명실공히 자력갱생이다.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오직 자력갱생, 견인불발함으로써 번영의 활로를 열고 훌륭한 미래를 앞당겨나가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손길아래 자력자강의 투사들로 더욱 억세게 자라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배심은 든든하며 필승의 신심 또한 충천하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불굴의 정신력으로 백승떨쳐온 영광스러운 전통이 있고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더 높이 추켜든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우리 인민은 자력자강으로 최후승리의 축포를 장쾌히 쏴올릴것이다.

본사기자 강 원 남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

혁명전사들과 인민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동지애의 천만리를 수놓아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잠간 만나보신 사람들의 이름까지도 몇십년세월이 흐르도록 잊지 않으시고 뜨겁게 추억해주시였다.

그 감동깊은 사실들중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을 해나가자면 동지를 아끼고 존경하며 진실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어느날 저녁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중앙기관에서 사업을 갓 시작한 일군으로부터 어느 한 단위의 실태를 료해한 정형을 보고받으시였다.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짧은 기간에 많은것을 료해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사람들을 얼마나 만나보았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일군이 한 20여명 만나보았다고 말씀올리자 그이께서는 누구누구를 만나보았는가고 하시였다.

일군은 자기가 만나본 사람들의 이름을 불과 몇사람밖에 부를수 없었다. 더이상 생각나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그나마도 틀리게 부른 이름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정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얼굴을 붉히는 일군에게 대상기관에 대한 료해사업에서 첫 공정은 사람들의 이름부터 기억하는것이라고 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한다는것은 단순히 기억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기는 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상하는 사람이 10명이 아니라 100명, 1 000명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대상하여 사업할 사람들의 이름은 다 기억하고있어야 합니다.

일군들이 대상기관 사람들의 이름을 다 모르고있는것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부족하기때문인것 같습니다.

일군들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한다는것은 단순히 그 누구의 이름 석자를 아는것이 아니라 그들을 혁명동지로 믿고 사랑하며 혁명의 동행자로 가까이 대한다는 신의의 표시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자자구구 뼈에 새기는 일군의 충격은 참으로 컸다.

일군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아래사람이나 사업대상이 아니라 혁명동지로 여기고 대하도록 따뜻이 일깨워주시는 위대한 장군님.

동지와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시고 무한한 정과 열로 극진히 위해주는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시는 그이의 열화같은 동지애의 세계.

절세위인의 한없이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를 뜨겁게 체험하는 자리에서 일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사람들모두를 혁명동지로 여기고 대할 때 그이께서 바라시는 일군의 본분을 다할수 있다는 사명감을 깊이 새겨안았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며 길이 전해지고 있다.

본사기자 김 일 권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는 농장원들
—벽성군 서원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농장벌에 새겨진 거룩한 자욱

사랑의 긴급대책

어느해 5월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의 북변에 위치한 한 협동농장을 찾으시였다.

랭상모판앞에 이르시여 벼모의 생육상태를 유심히 살펴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였다. 실오리같이 약하고 생기없는 벼모들을 보신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송구한 마음을 안고 서있는 일군들에게 모를 언제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비행기까지 띄워 랭상모를 날라오도록 긴급대책을 세워주시랴.

그날 밤 비행기에 실려온 줄대같이 푸르싱싱한 랭상모를 받아안는 꿈같은 현실에 접하여 농장원들은 농장벌이 떠나가도록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이렇게 되여 그해 가을 농장에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보내주신 랭상모로 례년에 없는 대풍을 안아오게 되였던것이다.

포전에 세워진 표말

수십년전 6월 어느날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한 시험포전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차에서 내리시여 푸르러 설레이는 논벌을 바라보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연구사업을 하고있는 농업과학자들과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문득 왜 포전에 표말이 없는가고 물으시였다.

과학자들은 아무 말씀도 올릴수 없었다.

어디에 가나 시험포전이라고 하면 의례히 번호와 품종이름 등이 적혀진 표말이 매 포전마다에 꽂혀있는것을 볼수 있다.

그런데 매일 포전에 나와 살다싶이 하다보니 손금보듯 환한 포전인지라 표말에는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은 과학자들이였다.

이런 실태를 헤아려보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오늘은 동무들이 포전에 나와있으니 별일없지만 앞으로 자신께서 혼자 지나다니다가도 볼수 있게 표말을 박아야 하겠다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나라의 농사일때문에 그토록 크나큰 심혈을 바치시는 우리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으로 과학자들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때부터 시험포전들마다에는 어버이수령님께서 현지지도의 길에서 언제든지 보실수 있게 한눈에 척 안겨오는 표말들이 세워지게 되였다.

점심식사도 미루시고

어느해 여름 강서구역 청산리로는 어버이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일하는 한 일군이 찾아왔다.

점심시간에 나타난 그 일군의 이야기는 농장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종전에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청산벌을 지나시다가 논판의 여기저기가 누렇게 된것을 띄여보게 되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혹시 병해충의 피해나 입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몹시 걱정하시며 일군더러 청산리에 가서 그 정형을 알아보고오라고 보내시였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그것을 알아야 밥맛도 날것 같다고 하시며 아직까지 점심도 드시지 않고계신다는 일군의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서둘러 논벌로 달려나간 농장일군들은 곧 그 원인을 밝혀냈다. 누런색을 띠고 시들어가고있던것은 벼포기가 아니라 살초제가 온을 내서 죽어가던 잡초들이였다.

농장에서는 누렇게 된 잡초 몇포기를 뽑아 어버이수령님께 보내드리게 되였다.

그때까지 점심식사를 미루신채 일군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화학화가 온을 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그제서야 마음을 놓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였다.

본사기자 백 영 미

락천성의 원천—풍부한 정서

오늘 우리 당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생활을 정서적으로 하여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락천적인 분위기가 차넘치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일군들이 군중과 어울리고 군중의 마음을 움직이자면 생활을 정서적으로 하여야 한다는것, 일군들이 정서가 메마르고 딱딱하면 군중이 속을 잘 주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게 된다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가는 언제 어디서나 락천적으로 살아야 하며 문화생활도 하고 정서생활도 하여야 합니다.》

화를 복으로, 애로와 난관을 승리의 도약대로 전환시킬줄 아는것이 혁명가이다.

혁명이라는 위대한 사업앞에서 주저와 동요를 모르고 과감히 靑고나갈수 있게 하는 힘인 락천성은 혁명적신념, 승리에 대한 락관과 직결된 개념이다.

락천성은 사업의욕을 돋구어주는데서 비할바없이 큰 작용을 한다.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는 우리 일군들은 항상 혁명열로 피가 끓고 심장이 불타야 한다. 이런 혁명적열정은 생활을 락천적으로 할 때 발휘되게 된다. 때문에 락천성은 우리 일군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품성이다.

메마른 땅에서 아름다운 꽃과 알찬 열매를 기대할수 없듯이 정서가 없는 생활에서는 투쟁의 열정도, 미래에 대한 락관도 나올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감정과 정서가 없는 인간, 생활을 떠난 인간이란 없으며 락관주의정신은 허공에서 생겨나는것이 아니라 풍만한 문화정서생활속에서 꽃펴나게 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의 정서적인 품성을 매우 중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은 풍부한 감정과 정서를 지닌 다정다감한 인간으로 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사람들과의 사업은 고상한 인간애,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킬줄도 알고 웃길줄도 알며 울릴줄도 알아야 능숙하게 할수 있다.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정서적인 감정을 키우는 과정에 형성되고 세련된 풍모로 승화되게 된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기회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서가 있고 다정다감한 일군과 마주앉으면 바싹 마른 가랑잎에 불이 당기듯이 인차 마음이 통하고 공감이 가지만 정서가 메마르고 딱딱한 일군과 마주앉게 되면 따분하고 웅색하여 몸부터 파다들고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다고 교시하시였다.

일군들이 메마르고 정서가 없으면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며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수 없는것은 물론 대중을 거창한 혁명실천에로 고무추동할수 없다는것을 깨우쳐주시는 가르치심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은 정치적식견이 높고 자연과 사회, 인간생활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 하며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읊을줄 알아야 하며 문예작품을 감상할줄도 알아야 한다고, 한마디로 말하여 일군이 제구실을 바로하자면 박식하고 정서가 풍부한 사람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시련의 언덕을 넘고넘으며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나가는 락관주의자는 비관을 배격한다.

혁명가는 좋은 말에만 귀맛이 동하여서는 안된다. 일하는 과정에는 곡절을 겪을수도 있고 어려운 고비에 부닥칠 때도 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고 락천적으로 생활하는것이 수양된 일군의 풍모이다.

때문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가는 자나깨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혁명의 전도에 대하여 생각할줄 알아야 하며 언제나 락천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비상한 정신력을 낳게 하는 락천성,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주의정신을 발양하여 일에서 마력을 내도록 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락천성,

일군들은 자기자신이 정서가 풍부한 다정다감한 인간으로 될뿐아니라 락천적인 생활의 조직자가 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서적인 인간으로, 문화적소양이 높은 락천가로 키우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옹변대회, 시랑총모임, 체육대회…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조건, 그에 따르는 생활조직…

이런 락천적인 환경은 집단안에 유쾌하고 흥겨운 분위기를 조성하여 대중이 항상 패기와 정열에 넘쳐 생활하도록 하며 역경을 웃음으로 다스리고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강자들로 키우는데서 비할바없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혁명적랑만에 넘쳐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곳에서는 로쇠와 침체, 안일과 해이, 비관이 있을 자리가 없이 오직 왕성한 투지와 불타는 정열, 전투적인 분위기만이 차넘치게 된다.

일군들은 그 어느때보다도 문화정서적인 생활기풍을 확립하여 집단안에 패일에 대한 희망과 명랑하고 락천적인 분위기가 차넘치도록 하며 걸음걸음 난관을 과감히 靑고 오늘의 총돌격전의 하루하루를 눈부신 기적창조로 흐르게 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량 순

사연깊은 기념사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애국의 한마음으로 불태우시며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 애국헌신의 장정은 우리 조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부강조국건설의 만년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방직기계공장을 찾으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에 뜻깊은 생산실습을 하신 잊지 못할 공장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의 감회는 참으로 류다르시였다.

자체로 유연창대직기를 만든것을 비롯하여 큰일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의 구내길에 나서시였다.

구내의 한그루 나무도 정답게 안겨오는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깊은 감회에 잠겨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생산실습의 나날을 추억하게 하며 길옆의 우거진 나무숲은 가볍게 바람에 선들거리고 구내공원의 꽃꽂에 꾸려놓은 화단의 꽃들도 하느적거리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포장도로를 앞장서 걸으시며 공장안팎이 아주 깨끗하게 잘 정돈되여있다고 치하해주시였다.

일군들은 한걸 흥그러워진 마음을 안고 발걸음도 가벼이 그이를 따라섰다.

한 일군이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공장에서는 구내에 천수백그루의 나무를 심고 가꾼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공장구내에 휴식장도 공원처럼 잘 꾸려놓았다고, 공장구내에 갖가지 나무들이 울창하니 마치 수림속에 들어온것 같은감이 든다고 하시며 앞에 산뜻하게 안겨오는 건물을 가리키시면서 무슨 건물인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깨끗하다고 거듭 되이시며 잘 정돈된 작업장안을 다 돌아보시고서는 평양방직기계공장은 생산문화, 생활문화수준이 매우 높은 애국의 1등공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1등공장,

값높은 그 평가는 공장의 일군들에게 방금전 공구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격동속에 되새겨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람찬 생산실습의 나날 몸소 애국의 마음을 기울여 다루시던 26호선반이 있는 공구직장이였다.

작업장에 들어서시여 수십년전의 추억을 더듬으시며 어려곳을 돌아보시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낯익은 그 선반앞에 이르시였을 때였다.

공장일군들의 눈앞에는 몸소 선반의 구석구석을 땀흘려 닦으시며 로동자들에게 이 선반을 새 기대처럼 만들어보자고, 마음이 불타면 된다고, 우리 함께 26호선반에 뜨거운 사랑을 쏟아붓자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모습이 다시금 어려와 후려워지는 마음을 금치 못하였다.

그때 기대에 난 자그마한 흠집을 가리키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만약 우리의 후대들이 이 기대를 물려받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하겠는가. 모름지기 그들은 이 흠집을 보면서 26호선반을 다루던 주인들의 마음속에 티가 있었구나 하고 생각할것이다. 어머니조국을 받드는 기대공의 마음에는 한점의 티도 없어야 한다. 기대를 사랑하는것은 곧 애국심의 표현이다. …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 나날 로동계급의 가슴마다에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철리로 새겨주신것은 바로 이런 애국심이였다.

력사의 그 나날을 되새길수록, 26호선반앞에 서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를수록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그들의 말아오른 가슴속에서는 이런 웨침이 솟구쳐올랐다.

(위대한 장군님, 우리 공장이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로동계급에게 참된 애국의 넋을 심어주신 장군님 덕분입니다.)

유연창대직기를 만들던 그때 거듭되는 실패앞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일떠선것도, 공장의 나무 한그루, 휴식터 하나하나에 정성을 바쳐 공장을 공원처럼 알뜰히 꾸릴수 있은것도 모두 이곳 로동계급의 가슴속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심어주신 애국의 마음, 장군님의 뜻으로 살며 일하려는 애국의 열정이 있었기때문이였다.

공장의 한 일군이 그이께 공구직장안에서 찍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이 없어 이곳을 찾아오는 참관자들이 아쉬워하고있다고 정중히 아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공구직장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자고 말씀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평양방직기계공장에 뜻깊은 기념사진을 남기시게 되였다.

참으로 그 기념사진은 절세의 위인께서 심어주신 애국의 씨앗을 싱싱히 자래워 무성한 애국의 거목으로 가꾼 이곳 로동계급에 대한 사랑과 크나큰 믿음의 표시였으며 로동계급과 맺으신 애국의 인연은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굳게 이어진다는것을 확증한 력사적인 화폭이였다.

본사기자 김 철 혁

위대성교양을 참신하게

증산군백송원료동원사업소 당조직에서는 종업원들속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주별, 월별, 분기별로 위대성교양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강연회, 해설모임, 읽은책발표모임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이 사업을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당보를 통한 위대성교양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얼마전 들끓는 현장에서 한 일군은 정력적인 령도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을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실감있게 해설하였다.

그러면서 민족번영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공화국창건 70돐을 높은 생산성과로 빛내여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일군의 이야기는 대중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당조직의 힘있는 정치사업은 모든 종업원들을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추동력으로 되고있다.

로농통신원 조 정 호

공화국의 기치따라 승리와 번영의 70년

수도의 위성도시는 위대한 사랑과 전변의 서사시를 노래한다

주체공업의 위력 떨치며 비약의 한길로 전진하는 남포시를 돌아보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포시는 지리적으로 보면 평양의 관문이고 경제적으로 보면 나라의 외아들공장들이 적지 않은 공업도시이며 수산기지도 있고 큰 항구도 끼고있는 항구도시입니다.》

창건후 장장 70년을 승승장구의 한길로 줄달음쳐온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거창한 변혁사는 남포시에도 력력히 비껴있다.

피어린 3년간의 전쟁으로 페허나다름없이 되였던 남포시는 오늘 수도 평양의 믿음직한 서쪽관문,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공업도시, 사회주의문명이 개화만발하는 항구문화도시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년대기마다 조국청사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남포시를 찾아 우리는 얼마전 기행의 길에 올랐다.

자립경제의 억년기둥이 마련된 력사의 고장

약동하는 계절 평양을 출발한 우리의 남포시기행은 만경대갈림길에서부터 시작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피어린 항일의 나날 꿈결에도 그리시던 고향 만경대를 지척에 두시고 강선의 로동계급부터 먼저 찾아가신 력사의 지점.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초행길에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심과 웅대한 강국념원, 드팀없는 자립의 의지앞에 우리 후손들은 삼가 머리를 숙인다.

생각은 살갗이 앞서달리는데 차는 어느새 강선땅에 들어섰다.

웅건한 철의 기지는 대동강을 배경으로 출항직전의 대함선집단마냥 장엄한 자태를 뽐내고있었다.

력사의 증견자 백양나무아래로 우리를 이끈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은 넘어진 벽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정전직후 시한탄, 불발탄도 해제하지 못한 재더미속을 남먼저 헤치시며 우리를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에 앉으시여 제강소의 복구방향을 의논해주시였습니다.》

키낮은 벽체와 하늘가에 거연히 솟은 대야금기지,

극적인 대조가 펼쳐진 여기에 서니 빈터우에 강력한 철의 기지를 일떠세우시느라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사가 뜨겁게 어려와왔다.

주체45(1956)년 12월의 함박눈과 도람통난로에서 피여나던 불길, 첫 천리마작업반과 위대한 천리마시대의 탄생, 주체97(2008)년 12월의 초고전력전기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

우리는 현대적이고 자립적인 대야금기지로 전변된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여러곳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현장에서는 현대과학기술의 정수인 2기의 초고전력전기로가 경쟁적으로 쇠물폭포를 쏟아내고있었다. 승리의 붉은 화살표들인가 련속조피기에서 뻗어나오는 시뻘건 강피들, 압연기들은 강국의 큰집을 떠받들 강철기둥감들을 쭉쭉 밀어내고있었다. 수입에 의존하던 콕스요, 중유요 하는 말이 영영 사라지고 지금은 보산제철소에서 나오는 주체철과 서부지구의 무연탄으로 강재를 뽑는다니 이 얼마나 경이적인 현실인가.

천리마시대의 전통을 이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벅찬 투쟁에서도 강선의 로동계급이 강철로 당을 보위해온 나라의 맏아들답게 앞장에 설것이라는 확신을 안고 우리는 금성뜨락또르공장으로 기행길을 이어갔다.

공장정문에 들어서는 우리의 귀전에는 수십년전 이곳을 찾으시여 남을 쳐다보지 말고 대담하게 자체의 힘으로 뜨락또르를 생산하자고 뜨겁게 호소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듯싶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믿음은 기양의 로동계급을 자력갱생의 투사들로 키웠고 30여일만에 뜨락또르의 탄생이라는 기적을 불러왔다고 생각하니 우리의 가슴은 저도모르게 뜨거워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불철주야로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그 길우에 어제날 호미와 낫가락이나 겨우 벼리던 야장간대신 굴지의 뜨락또르생산기지가 일떠서 시대를 뒤흔들었다.

함유연직장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현지에서 작업모습까지 보아주신 CNC공작기계들이 첨단기계제작기술의 새 경지를 펼치고있었다.

공장개건설계도면들은 희한하기 이를데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펼치신 웅대한 설계도따라 비약의 나래를 펼쳐가는 이곳에서 래일에는 또 어떤 새로운 전설이 태여날것인가.

대동강과 나란히 뻗은 대통로를 달린 우리는 어느덧 대안땅에 이르렀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는 힘있는 공장입니다. 김일성》이라는 글발을 정문에 모신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역시 웅장하기 이를데 없었다. 명당자리에 터전을 잡아주시고 건설전과정을 직접 지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굴지의 대형기계제작기지가 솟아났다.

대상설비생산으로 불도가니마냥 끓고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당시 6m프레나 기대공이였던 련합기업소일군인 조명길동무를 만났다.

주체70(1981)년 5월 련합기업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몸가까이 부르시고 나이며 가정형편, 졸업한 학교며 기술기능수준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으시고나서 좋은 기대를 잡았으니 앞으로 일을 잘하라고 당부하시였다고 한다.

력사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련합기업소는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심장이며 대대손손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귀중한 재부이라고 기쁨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대안땅의 자랑은 결코 사회주의본성에 맞는 주체의 경제관리체계가 태여난 력사의 고장이라는데만 있지 않았다. 대안전기공장에 우리 나라 전기기계공업이 창설된 곳이라는 력사적푸계가 실려있다면 이 기업소는 내놓고 자랑할만 한 대형기계제작기지의 탄생이라는 뚜렷한 의미를 안고있었다. 참으로 가슴벅찬 현실이다.

해방후 기계공업이라고는 령이나 다름없었던 남포시가 현대적공업지구로 전변!

바로 이렇게 어제날 소로길이였던 만경대갈림길에서 이 나라 부강번영의 대통로가 힘있게 뻗어나간것 아닌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불면불휴의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며 조국과 후대들에게 얼마나 거대한 애국유산을 남기시였는가를 우리는 기중기가 수풀처럼 일떠서고 배고동소리 은은한 남포항을 돌아보면서도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1만t급이상의 수송선들을 동시에 수십척이나 댈수 있는 9개의 부두며 드넓은 창고들과 적재장, 각종 기중기와 운수기재들…

주체68(1979)년 1월 대한의 강추위속에 남포항을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수령님, 그날에 지시봉으로 짚으신것은 파연 남포항건설계획전망도만이였던가.

아니였다. 조국의 미래였다. 오늘은 눈부신 현실로 되여 영원한 생명력을 구가하고있는 우리 후손들의 고귀한 밑천, 불멸의 애국유산이였다.

추억하기에도 가슴저린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해, 강추위도 아랑곳없이 불편하신 몸으로 어버이장군님께서 다녀가신 남포유리병공장(당시)에서도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았다.

잊을수 없는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후대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가장 귀중한 물질적유산은 대대손손 제땅에서 제힘으로 살아갈수 있게 하는 주체화된 경제이라는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주시였다고 한다.

정녕 자립경제의 위력을 과시하는 강력한 공업기지들과 우후죽순처럼 일떠선 시안의 경공업공장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소리쳐 당부하고있었다.

건국의 초행길을 앞장에서 헤치시고 현지지도의 멀고 험한 길을 이어가시며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개척자이신 우리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길이길이 전해가라고!

혼연일체의 숭고한 화폭들이 펼쳐진 곳에서

력사의 고장 청산리, 스치는 바람결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은덕을 전해주는 사연깊은 대지를 밟으니 감회도 새로왔다. 어제날 돌과 바위투성이산이라고 하여 석두재라 부르던 이 산기슭에 사회주의농촌건설의 본보기농장이 펼쳐졌다.

청산리에 봄이 와야 온 나라에 봄이 온다고 하시며 열백번 다시 고쳐서라도 반드시 기계로 모를 내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교시를 받았던 농장이 지금은 새형의 모내는기계를 자체로 생산하여 모내기를 남먼저 끝낸다고 한다. 마을은 마을대로 선경이요, 기계와 과학의 힘으로 농사짓고 물걱정이라는 것은 아예 사라졌으니 이 나라의 봄이 시작되는 곳, 풍년가의 서곡이 울려퍼지는 곳이 바로 예 아니랴.

과학농법의 새시대를 앞장에서 열어가는 청산리를 떠난 우리는 태성할머니라는 부름과 더불어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태성리의 옛 선거장을 찾았다.

청년영웅도로를 마주보며 서있는 키낮은 집의 추녀아래에서는 오늘도 《…우리는 수상님을 지지합니다!》라는 신념의 목소리가 울려나오는듯싶었다.

전후 그처럼 어려운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 크나큰 힘을 드린 평범한 한 할머니의 진정의 토로, 그것은 가난과 치욕의 운명에서 건져주시고 참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심의 분출이였다.

오석산의 황통산성을 지나 통강군 옥도리를 찾았을 때에도 우리는 인민의 그 진정을 다시금 심장깊이 느끼게 되였다.

첫걸음에 우리의 눈길을 끈것은 천연화강석을 다듬어세우고 《김일성장군 만세!》라는 글발을 정히 쪼아박은 토지개혁기념비였다.

이 나라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풀어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웅측한 기념비였다.

여기 남포땅에는 위대한 혼연일체의 숭엄한 화폭들이 류달리 많이 새겨져있었다.

온 나라에 알려져있는 태성할머니며 첫 천리마작업반장 진응원, 《조선로동당의 딸 청년녀성영웅》호의 첫 처녀선장, 우리 수령님과 류다른 인연을 맺고 산 여기 옥도리의 림근상영웅관리위원장…

사실 해방직후 남포시의 주민구성은 매우 복잡하였다고 한다.

하다면 갈래많은 시내물처럼 각양각색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줄기찬 대하를 이루고 준엄한 날에나 행복한 날에나 변함없이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올수 있었는가.

온천군에 대한 기행길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찾게 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현지지도자욱도 금당리의 포전길에 남기셨으니 온천군에 대한 130차에 달하는 현지지도의 길우에 얼마나 많고많은 사연들이 새겨져있는것인가.

주체49(1960)년 6월초 운하리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리의 이름그대로 안개가 대하마냥 자욱히 흐르는 이른새벽, 잡초무성한 바다기슭에서 갈게잡이를 하던 한 로인은 두런두런 말소리와 함께 바다가로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였다. 로인은 그쪽엔 길이 없고 진펄과 감탕뿐이라고, 어서 돌아들 서시라고 황급히 만류하였다.

그러나 짙은 안개속에서 인민을 위한 일인데 길이 없다면 우리가 첫길을 내자고 하시는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려오더니 몸소 앞장에서 감탕길을 헤쳐가신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어버이수령님이신줄 그 누가 알았으랴. 그렇게 여기 온천군에서 이어가신 길이 7만 천여리가 넘고 군내인민들속에 계신 나날은 연 수백일에 달한다고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천군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에서 수령님의 현지교시를 자자구구 깊이 연구하고 철저히 관철하는 그 길에서 새로운 온천군이 태여난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애국주의로 교양하는 사업에 품을 넣도록 강조하군 하시였다.

이 나라 천만자식들을 한품에 안고 참되게 키워오신 절세위인들의 온혜로운 손길이 있어 농사를 짓자니 짠물탓에 망치고 어업으로 연명하려니 고기밥신세가 되기 일쑤이던 남포의 토배기들과 복잡한 경력의 각계각층이 참된 공화국공민으로, 애국자로 성장할수 있은것이다.

건국의 터전을 반석같이 다지시고 자립경제의 억년기둥을 세우신것만도 위대한 은공이건만 무한대한 사랑과 믿음을 젖줄기로 공화국의 주인들을 영웅인민으로 훌륭히 키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업적은 만대에 빛나리라.

심장의 고백을 수첩에 적으며 우리는 배길에 올랐다.

강복판에 나서니 한쪽에는 황해남도의 높고낮은 산발들이 천연방파제처럼 연줄연줄 뻗어갔는데 다른 한쪽으로는 남포시내중심부의 전모가 한폭의 대형전경화처럼 안겨온다.

저기 신흥지구의 양지바른 곳에서는 원아들의 궁전인 초등, 중등학원이 반겨주고 시내입구의 학생가방공장에서는 경쾌한 증산의 동음이 울려온다.

체육촌지구의 고층살림집들과 전쟁로병보양소, 꽃수레와도 같은 애육원, 육아원이며 개건된 경기장과 소년단야영소가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서해의 명승 와우도에 꾸려진 인민의 유원지와 명당자리에 자리잡은 굴지의 선박수리 및 건조, 해체기지인 령남배수리공장이 눈길을 끈다.

눈앞에 흘러가는 이 모든것이 조국의 번영이 함축된 화폭이고 인민의 행복상인 동시에 위대한 사랑의 력사를 전하는 증견자들이 아니랴.

수십리 물길을 달린 우리는 드디여 20세기의 기적—서해갑문에 이르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에 가장 밝은 미소를 남기신 곳, 자신께서는 서해갑문을 건설한데 대하여 제일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며 친히 쓰신 **《서해갑문은 우리 인민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이룩한 위대한 창조물이다.**

갑문건설자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김일성 1986.5.22.》이라는 불멸의 친필글발을 우리는 경건히 우러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족하게 평가하시였듯이 실로 갑문의 완공은 주체사상의 위대한 승리였고 일심단결과 자립경제의 위력에 대한 일대 시위였다.

갑문의 전망대에 올라서니 눈앞에 일망무제하게 펼쳐진 대동강하류일대의 전경이 실로 장관이다.

멀리 수도 평양쪽으로는 대인공호수가 펼쳐졌는데 유구한 세월 덧없이 바다로 흐르던 대하가 여기서 흐름을 멈추고 언제에 매달려 출렁이고있다.

수수천년 조수로 수도 평양까지 위협하던 서해의 검푸른 물결은 아직도 옛시절의 힘을 시위하듯 언제의 한켠에 달라붙어 헛되이 몸부림친다.

허나 반석같은 자립경제의 기반에 뿌리박고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거연히 솟아오른 서해갑문은 20리 날바다를 막아 끄떡없이 서있다.

그 장하고 억센 모습에서 우리는 이곳 남포시의 총적인 형상을 보고있다.

태양을 옹위하는 위성인양 수도 평양의 서쪽관문을 지켜선 불변의 위성도시! 조국의 발전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굴지의 공업도시, 항구문화도시!

남포땅을 고향집뜨락처럼 손금보듯 환히 알고계시며 각별한 정을 기울여 가꾸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이 찬란히 꽃피여나고있다.

실로 금속과 기계공업, 농업과 수산업, 조선업과 해운업, 건재공업과 제염공업이 조화롭게 배치되고 문화가 발달된 공화국의 보배도시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물을 다스리면 천하를 다스린다고 했지만 우리 수령님들처럼 날바다를 길들인 위인들을 그 어느 력사책에서 찾을수 있겠습니까.》

동행한 서해갑문사업소 기사장 정호룡동무의 말이였다.

지난날 쩝쩔한 물로 목을 추기며 살아가던 선창, 진수, 해안, 항구, 후포동은 물론 바다물이 드나들던 곳들 아니 온 남포땅에서 물의 력사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한다.

물에 대한 세기적숙망이 해결된 오늘 어찌하여 소금기때문에 저수지의 물맛까지 보시던 어버이수령님과 강서약수가 갑자기 말라버렸을 때 즉시에 비상대책을 세워 사랑의 샘줄기가 영원히 흐르게 하여주신 위대한 장군님, 지난해 그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걸으시며 대중용폭박으로 원수맛까지 보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뜨겁게 어려오는것인가.

이때 소년단넥타이를 맨 학생들이 갑문전망대에 올라와 환성을 내지르는것이였다. 물통의 샘물로 목을 추기는 모습도 보이였다.

저렇게 때없이 마시는 먹는물, 늘 즐겨찾는 약수에 그처럼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줄 저 애들이 알고나 있겠는가. 행복한 저 애들은 그토록 참혹한 빈터우에서 맨주먹으로 강국의 기틀을 다지시고 한평생 자력으로 만복의 애국유산들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하늘같은 은덕을 아직 다는 모를것이다.

자립경제의 억년기둥은 위대한 한평생의 산아이고 혼연일체의 뜨거운 피줄기는 위대한 심장에 뿌리박고있다는것이 우리가 여기 남포땅에서 찾아낸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서사시종자이다.

내 조국의 무궁창창한 미래가 보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친히 이름지어주신 령남배수리공장의 5천t급무역짐배 《자력》호와 남포항의 《자강력1》호항만기중기, 남포대경수산사업소 종합봉사선단의 《문명-1》호와 《문명-2》호도 다 보인다.

오늘의 전변은 그 폭과 깊이가 류달리 심원하고 미래지향적이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는 구호아래 문명에로의 지름길을 탄 인재의 대부대가 자라나는 미래원과 과학기술보급실, 원격강의와 새 기술보급거점을 통하여 자강력을 백배로 다지고있다.

이처럼 슬기롭고 강의하며 견결한 결사관철의 대부대가 여기 남포땅에 아니 온 나라에 천만으로 차넘치고있다.

위대한 존함으로 불리우는 성스러운 조국이여, 태양의 빛발 차넘치는 인민의 나라여,

무궁토록 번영하라,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라!

글 특파기자 주 창 선
사진 본사기자 김 진 명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알곡증산의 담보를 마련하자

다수확의 비결은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다

전국농업부문 일군들을 위한 기술전습회에 참가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야 합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온 나라 전야가 부글부글 끓고있는 가운데 얼마전 안악군 오국협동농장에서는 농작물생육후반기비배관리와 관련하여 전국농업부문 일군들을 위한 기술전습회가 진행되였다.

이번 전습회는 우리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모내기전투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한 기세드높이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때에 열린것으로 하여 의의가 컸다.

전습회장에서 우리와 만난 리재현 농업성 부상은 이렇게 말하였다.

《올해 당의 현명한 령도와 온 나라 인민의 드높은 애국의 열정에 의해 모내기가 여느때없이 최적기에 질적으로 결속되였습니다. 이제 비배관리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진행하는가에 따라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목표점령의 담보를 마련하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결정되게 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올해 농업부문에 비료를 비롯한 영농자재와 물자들이 원만히 보장되였다. 그리고 당의 과학농사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농업성과 각 도, 시, 군일군들의 빈틈없는 작전과 지휘,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모내기전투가 최적기에 결속되고 김매기를 비롯한 영농공정들이 질적으로 원만히 진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지금 협동벌마다에서는 례년에 없이 흐뭇한 풍경이 펼쳐지고있다.

이제부터 농작물생육후반기비배관리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올해농사의 성패가 결정된다. 지난 시기의 교훈은 과학을 알아야 진정한 땅의 주인이 될수 있으며 낡은 경험이나 하늘이 주는 우연에 매달린것이 아니라 과학을 절대적으로 믿을 때 풍년결실을 안아올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리하여 내각과 농업성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것을 농작물생육후반기비배관리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로 보고 영농전투를 작전하였다. 그 사업이 바로 이번 기술전습회였다.

기술전습회에서는 올해 강수량이 많아지고 해빛쬠률이 낮아질것으로 예견되는데 맞게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가 강조되였다.

우선 논벼비료주기,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며 병해충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문제였다. 올해 7, 8월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고 지역적으로 폭우와 많은 비가 내릴것이 예견되고있다. 여기로부터 전습회에서는 도, 시, 군, 협동농장들에서 장마철고온다습에 의한 피해, 비바람과 큰물, 태풍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농업기술적대책을 철저히 세우는데 중심을 두고 농작물비배관리를 진행할데 대한 문제가 지적되였다.

먼저 논벼조절비료, 이삭비료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였다. 여기서는 논벼품종별특성에 맞게 비료주는 량을 정확히 규정하고 그 량을 절대로 초과하지 말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강조되였다. 조절비료주는 시기와 량을 바로 정하며 비료주기를 반드시 깊은층비료주기방법으로 진행할데 대한 문제, 논벼이삭비료주는 시기와 량을 바로 규정하고 정확히 실천할데 대한 문제들이 언급되였다.

또한 논벼농사는 뿌리농사라는것을 깊이 인식하고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할데 대한 내용이 상정되였다. 지난 시기 여러 단위에서 나타난 경험과 교훈을 분석하며 논물관리의 중요성을 원리적으로 깨우쳐주는 농업성 일군의 강의는 전습회참가자들을 다시금 각성시켰다.

그리고 논벼생육후반기병해충구제대책을 면밀히 세우고 정확히 집행해나갈데 대한 문제도 이야기되였다.

다음으로 강냉이생육후반기비배관리를 잘할데 대한 내용이 이야기되였다. 여기서는 강냉이밭이삭비료주는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지킬데 대한 문제, 김매기와 장마철습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강냉이병해충구제대책을 빈틈없이 세울데 대한 문제 등이 제기되였다.

특히 올해 장마철에 많은 비가 내릴것으로 예견되는 조건에 맞게 강냉이밭에 물받이도랑과 물빼기도랑을 정확히 치며 땅속도랑에 의한 물빼기를 진행하여 습기피해를 미리막을데 대한것이 강조되였다.

강냉이웃부분꺾어주기방법에 대한 새 기술강의가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여러 단위에서 새로 도입하여 그 우월성을 확증한 이 강냉이웃부분꺾어주기방법은 개꼬리뽑아주기보다 정보당 소요로력을 30~40% 절약하면서도 소출을 높일수 있는 선진적인 영농방법이다.

전습회에서 제기되는 내용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원리적으로 깊이 터득하기 위해 진지하게 파고드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이였다.

다음으로 전습회에서는 뒤그루큰모모판관리와 모내기에서 나서는 문제, 앞그루밀, 보리, 감자수확적기를 바로 정하고 정확히 집행할데 대한 문제, 원그루콩발비배관리와 뒤그루콩심기를 잘할데 대한 문제들이 취급되였다. 그리고 유기광물질복합비료, 대용린, 카리, 미량원소비료, 대용농약 생산 및 주는 방법도 중요하게 언급되였다.

오국협동농장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주인된 자각과 기발한 착상을 보여주는 여러가지 비료주는 기계와 농기구들, 당초유인제 등도 참가자들의 호기심과 열의를 부쩍 높여주었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장주변의 능력이 큰 돼지공장결에 현대적인 유기질비료생산기지를 꾸려놓고 그 덕을 크게 보고있는 안악군의 현실, 오국협동농장의 그림같은 시험포전과 양수장 등을 깊은 감동속에 목격하며 참가자들은 새로운 결의를 가다듬었다.

끝으로 고인호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은 올곡식수매조직을 잘 짜고들고 농작물생육후반기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하여 다수확의 담보를 마련함으로써 뜻깊은 올해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기술전습회를 통하여 여름철의 하루하루야말로 한해농사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인 나날이며 봄내 애써 심어놓은 곡식이 풍만한 열매를 맺는가 아니면 쭉정이로 되는가 하는것은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하는데 있다는것을 다시금 절실히 깨닫게 되였다.

이번 기술전습회는 농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 지어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도록 떠밀어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장은영

비료주기의 기계화비중을 높여

안악군 금강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작물의 특성과 생육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비료치기방법을 적용하여 적은 비료를 가지고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농업부문에서는 비료의 허실을 막고 그 효과성을 보다 높여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는 방도의 하나로서 깊은층비료주기를 널리 받아들이고있다.

이런데로부터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 농기계도입시험소 설계원 홍성호, 정상철동무들이 창안하고 안악군 금강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 지난해농사에서부터 리용하고있는 깊은층액체비료주는기계가 이목을 끌고있다.

이 기계는 구조가 간단하고 적은 로력으로 깊은층비료주기를 질적으로 할수 있어 좋다.

모내는기계의 뒤부분을 해체하고 련결하여 리용하게 된 이 기계는 본체에 설치된 액체비료통과 액체비료량자동조절장치, 액체비료흐름관, 비료골째개와 묻어주는 장치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깊은층액체비료주기만이 아니라 논김매기도 할수 있으면서도 필요에 따라 잎덧비료주는 장치도 설치하여 동시에 리용할수 있다.

이 기계는 우선 로력이 긴장한 비배관리시기에 많은 로력을 절약할수 있어 효과적이다. 세명의 로력만 있으면 하루에 여러 정보의 논에 깊은층액체비료주기를 할수 있다.

또한 비료주는 깊이를 질적으로 보장할수 있어 좋다.

이와 함께 성형알비료를 깊은층에 주는 기계에 비하여 연유소비량이 적어 실리적이다.

뿐만아니라 비료골째개가 나가면서 논벼들의 뿌리를 잘라주어 아지치기를 왕성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니 이것 역시 우점이다.

지난해 이 기계를 리용해본 농장 제3작업반 초급일군들의 말에 의하면 많은 로력이 절약되고 비료의 허실이 줄어들면서도 알곡증수량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고 한다.

사실 작업반포전들에 깊은층비료주기를 하자면 작업반의 거의 모든 로력을 다 동원하여야 하였으며 그 깊이도 한결같이 보장하기가 정말 헐치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기계를 리용하면서부터는 3명의 로력이면 충분하면서도 그 깊이가 과학적으로 보장되여 비료의 효과성이 적어도 한주일이상은 더 지속되였다고 한다.

결과 정보당 0.5t이상의 알곡이 증수되였다고 한다.

품이 많이 드는 중요한 영농공정의 하나인 비료주기를 기계화하여 많은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그 질을 과학적으로 보장하여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한것이다.

이 얼마나 실리적인가.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여나가는 여기에 알곡증수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이 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다시한번 이것을 확신하였다.

지금 농장에서는 지난해에 비하여 기술적으로 더욱 완성된 십여대의 깊은층액체비료주는 기계들이 만단의 출동준비를 갖추고있다.

그 농기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 문제가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농업부문에서 농기계는 무장장비와 같다고 가르치시였다.

황해남도농촌경리위원회 농기계도입시험소의 설계원들과 금강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지혜와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는 이 농기계의 제작도입과정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농기계부문의 일군들과 연구사, 기술자들이 이들처럼 들끓는 현실에 뛰여들어 농산작업의 기계화를 위한 하나의 기술적문제라도 아글타글 풀어나갈때, 이 농기계의 도입시험과정을 성심성의로 도와준 이곳 일군들처럼 연구사, 기술자들을 굳게 믿고 힘껏 떠밀어줄 때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이다.

본사기자 박영진

실리보장의 원칙을 틀어쥐고

곽산군 남단협동농장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경제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은 일군들의 높은 실천력을 요구하고있다.

과학적인 영농방법으로 농작물비배관리를 알심있게 짜고들고있는 곽산군 남단협동농장 일군들의 일본새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모내기가 마지막단계에 들어섰을 때 농장일군들속에서 심각하게 론의된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비료의 허실을 막고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지효성알비료를 농장자체의 힘으로 해결할수 없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지난 시기 농장에서는 화학비료의 리용과정에 여러가지 원인으로 허실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효과성이 떨어져 더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

일군들은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폴리비닐알콜용액과 진흙, 여러가지 미량원소 등을 일정한 비률로 혼합하여 피복처리한 비료를 치면 논벼가 비료성분을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흡수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일군들은 어떻게 해서나 지효성알비료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 깊은층비료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할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자면 농장자체의 힘으로 지효성알비료를 만들어내야 하였다. 그런데 농장의 형편과 바쁜 영농사업으로 하여 일군들은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림성일판리위원장의 립장은 명백하였다.

일이 잘되고 못되는 원인은 조건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당정책을 대하는 사상관점에서의 차이, 투쟁기풍에서의 차이에 있다. 자강력을 비약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시켜 이 문제를 농장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자.

일군들모두가 당정책의 운명이 자신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금 뼈에 새겼다. 그리고 새로운 각오를 안고 분발해나섰다.

이렇게 되여 자체의 힘으로 지효성알비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진행되고 일군들부터 이 사업에 앞채를 메고 뛰여들었다.

특히 강성일리당위원장은 이 사업을 리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힘껏 떠밀어주는것과 함께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 어깨를 들이밀었다.

일군들의 말없는 이신작칙에 고무된 농장원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는 과정에 끝끝내 자체의 힘으로 지효성알비료를 만들어내였다. 당정책을 일관성있게 관철한 보람은 참으로 컸다.

비료의 허실을 없애고 그 효과성을 높임으로써 논벼에 각종 영양원소를 충분히 보충해줄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일군들은 많은 품을 들여 만들어놓은 이 비료를 과학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깊은층비료주기의 방법으로 여러가지 영양성분들을 충분히 보충해주기 위한 대책도 빈틈없이 세웠다.

이렇게 놓고볼 때 자기 사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늘 사색하며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알곡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일본새는 얼마나 혁신적인가.

본사기자 김강철

농작물영양관리에 큰 힘을 넣어

평원군 룡이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부침땅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근본열쇠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정보당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평원군 룡이협동농장에 도착한것은 아침해살이 한껏 퍼진 때였다. 푸르른 강냉이잎들이 설레이는 포전에 이르니 여러명의 농장원들이 강냉이고갱이에 무엇인가 주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논벼포전에서는 잎덧비료주기가 한창이였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우리는 한 농장원을 만나 무엇을 주는가고 물었다. 그는 웃음을 지으며 영양수주기를 한다는것이였다. 그러면서 끓인 진거름과 소석회를 섞어만든 영양수를 논벼에는 분무해주고 강냉이고갱이에는 넣어준다고 이야기하였다.

마침 우리는 이곳에 나와 당면한 영농작업을 지휘하던 김형남판리위원장을 만날수 있었다. 그는 현재 진행하고있는 영양수주기는 좋은 점이 많다고 하였다.

영양수를 주면 농작물의 영양상태가 좋아지는것은 물론이고 뿌리활성도 높아지기때문이다. 뿌리가 땅속깊이 뻗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할수 있는 능력도 높아지니 여러모로 유리하였다.

사실 모내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낸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기쁨은 더없이 컸다. 그럴수록 그들은 마음의 탕개를 늦추지 않았다.

여러가지 영양관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모내기전투성과가 풍요한 가을로 이어지게 하자.

이것이 농장일군들의 결심이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영양수를 농작물의 영양관리에 적극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특히 잎수를 따져가며 영양수주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기술지도를 심화시키였다. 또한 농장원들과 함께 영양수주기도 하면서 그들에게 농작물의 영양관리에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것을 설명해주었다.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앞채를 메고 달리는 일군들의 뒤를 따라 모든 농장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포기마다에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영양관리를 잘하기 위한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노력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다. 조절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문제에도 큰 힘을 넣었던것이다. 일군들은 지난 시기 여러가지 비료주기방법이 논벼생육에 주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 화학비료와 함께 미량원소가 많이 포함된 해염토, 가루거름 등을 일정한 비률로 섞어 깊은층비료주기를 하면 비료의 허실을 막으면서도 효과성을 높일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작업반들에서 조절비료주는 시기를 바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는 비료주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농장에서 소석회를 논벼의 영양관리에 리용하는데도 모를 박고 그 준비사업을 잘한것도 좋다. 논벼포전에 소석회를 치는 경우 토양속에 농작물이 흡수할수 있는 영양물질함량이 늘어나 알곡증수효과를 볼수 있기때문이다.

이 모든 사실앞에서 우리는 앞선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농작물의 영양관리를 잘해나가는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투쟁이 좋은 결실을 안아올것이라는것을 믿어의심치 않았다.

본사기자 황철민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해나가고있다.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에서— 김광림 찍음

현대적인 과수원을 새로 조성

중화군에서

중화군에서 명월협동농장에 현대적인 과수원을 새로 조성하였다.

우량품종의 키낮은사과나무와 복숭아, 살구나무를 심은 이 과수원은 과수작업의 기계화에 편리하게 모든 포전들이 규격포전으로 꾸려졌다.

얼마전 이 과수원을 돌아본 해당 일군들은 이들처럼 과수원을 만들면 자기 도의 협동농장들에서도 얼마든지 전문과수농장들 못지 않게 과일생산을 더욱 늘일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것과 함께 남새와 축산, 과수를 비롯한 농촌경리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난해 과일군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일군에서 이룩된 좋은 경험을 온 나라에 널리 일반화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그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군책임일군들은 과수원조성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작전을 펼치고 첫시작부터 통이 크게 일판을 벌려나갔다. 그들은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설계를 과학적으로 하도록 하고 시공조직과 지도를 따라세웠다. 그리고 토지정리에 필요한 불도젤들을 보장해주면서 공사가 힘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당의 구상을 하루빨리 자랑찬 현실로 꽃피울 불같은 열의안고 떨쳐나선 군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주저없이 토지정리전투를 완강하게 내밀었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토지정리를 질적으로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들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과일나무구뎅이파기와 유기질비료생산, 콩크리트지지대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이 나날에 1만 4천여m의 전호식구뎅이파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도로건설과 하천정리공사 등 방대한 작업과제가 앞당겨 수행되였다.

군에서는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유기질비료생산과 콩크리트지지대생산을 힘있게 내밀었다. 군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면서 수백대의 콩크리트지지대생산과 유기질비료생산을 힘있게 다그쳤다.

해당 부문에서 과수원조성에 필요한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모들을 보내주어 군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기 고장을 더욱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려갈 불같은 열의를 안고 떨쳐나 과일나무밭에 정보당 100t이상의 질좋은 유기질비료를 낸데 이어 짧은 기간에 우량한 과일나무들을 심고 과수원을 새로 조성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기간에 집짐승먹이에 필요한 다수확작물도 심어 축산물생산을 활성화하고 과수원의 지력을 더욱 높일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아놓았다.

중화군 명월협동농장에 본보기과수원이 꾸려지게 됨으로써 산을 끼고있는 협동농장들에서 농산과 과수업, 축산업을 다같이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과일생산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할수 있는 현대적인 포전들을 보며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맛좋은 과일을 먹이려는 우리 당의 원대한 리상이 또 하나의 현실로 펼쳐졌다고 하면서 과일증산으로 더욱 흥할 농장의 래일을 가슴벅차게 그려보고있다.

지금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새로 조성한 과수원에서 과일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 높은 목표밑에 과일나무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인간사랑의 200일이 전하는 이야기

한 영예군인의 체험담을 들으며

200일이야기,

이것은 대동강구역에서 살고있는 한 영예군인이 본사편집국으로 보내여온 편지의 제목이다.

편지에도 제목을 다는가? 이것이 모두의 의문일것이다. 편지를 펼쳐든 순간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하다면 평범한 나날들중의 200일을 그토록 잊지 못해하는 로인의 가슴속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있는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성은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고있는 보건일군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풍모입니다.》

지난해 8월 어느날이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으로 한 로인이 찾아왔다. 치료사업을 하고있던 이비인후과 및 두경부외과학강좌의 리경화동무는 쌍지팽이에 의지하여 서있는 로인을 보자 더 말할 사이없이 부축하여 자리에 앉히였다.

이것이 영예군인과 이곳 의료집단과의 인연으로 되였다.

치료는 여러달째 계속되였다. 집체적인 협의를 거듭하면서 정성을 기울였지만 치료에서는 이렇다할 전진이 없었다. 보기 드문 병을 앓고있는 로인은 얼마전에 척추수술을 받은것으로 하여 운신하기도 무척 힘들어했다.

(의료설비가 없이 치료를 할수만 있다면 매일이라도 이동치료를 하련만…)

매번 로인을 대할 때마다 리경화동무는 이런 안타까움을 누를길 없었다. 그래서 더욱 왼심을 쓰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리경화동무는 치료를 받게 되여있는 날로부터 며칠이나 지나도록 기다려도 로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것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무리 몸이 불편하다고 하여도 이렇게 오래도록 오지 않은적은 없었기때문이였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는 다급히 전화기를 들었다.

아니나다를가 로인은 못 온것이 아니라 일부러 오지 않은것이였다.

《고칠수 없다는것을 알면서도 내 욕심만 차리면서 고생을 시켜서 정말 미안하오. 지금껏 바친 선생들의 그 진정이면 더 바랄것이 없소.》

이렇게 치료를 포기하였던 영예군인이 그후 어떻게 되여 다시 병원에 오게 되였으며 입원치료까지 받게 되였는가를 우리는 일일이 다 전할수 없다. 다만 그 하많은 이야기들에 어떤 환자이든지 무조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불같은 자각, 사회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영예군인의 건강회복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돌린 이곳 의료일군들의 모습이 뜨겁게 슴배여있다는것만은 말하고싶다.

영예군인이 전하는 200일, 진정 그것은 순간순간이, 하루하루가 불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된 나날이였다.

그속에는 환자의 수술부담을 최대로 덜어주고 사소한것까지 놓칠세라 각별한 주의를 돌리며 세련된 솜씨로 수술을 집도한 김태명과장의 모습도, 수술후 몸이 빨리 추서자면 영양보충을 잘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러차례에 걸쳐 토끼곰을 비롯한 갖가지 보양음식들을 마련해온 담당의사 최창현동무의 모습도, 매일, 매끼 색다른 음식을 마련해주기 위해 남몰래 마음쓰고 로인이 제대로 식사를 못할 때에는 입에 떠넣어도 주면서 친자식의 정을 기울인 간호원, 간병원들, 영예군인환자를 위해 사심없는 사랑을 바친 강좌의 전체 의료일군들의 모습이 뜨겁게 새겨져있었다.

특히 지난 2월 8일은 로인의 인생에서 잊을수 없는 날로 소중히 간직되게 되였다.

이날은 로인이 66번째로 맞는 생일날이였다. 입원생활기간이고 또 수술까지 받은것으로 하여 자기의 생일에 대하여서는 감감 잊고있은 로인이였다. 점심시간에 담당의사의 손에 이끌려 어느 한 방에 들어서던 로인은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풍성하게 차려진 생일상이 자신을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평범한 한 영예군인을 위해 이렇듯 온갖 정성을 다하는 의료일군들의 모습에 로인은 북받쳐오르는 격정을 터치고야말았다.

《경애하는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진정 시간의 흐름만으로는 헤아릴수 없는 200일이였다.

이 땅에 흘러가는 평범한 나날들에 이렇듯 불보다 뜨거운 마음들이 비껴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나날이 젊음으로 약동하고 생기와 활력으로 비약하는것 아니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정신을 지니고 환자치료사업에 뜨거운 정성을 기울여가는 이런 참된 보건일군들이 있기에 우리의 200일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것이다.

본사기자 조향미

이란대사관 성원들 문덕군 립석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조선이란친선주간에 즈음하여 쎄예드 모흐쎈 에마디 주조 이란이슬람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21일 문덕군 조선이란친선 립석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농장을 찾은 손님들은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작물비배관리를 알심있게 해나가고있는 농장원들의 일손을 도와 강냉이밭김매기를 하였다.

특명전권대사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하면서 이곳 농장이 올해에 풍년을 이룩하기 바란다고 말하였다.

이에 앞서 이란대사관 성원들은 평양외국어대학을 찾아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외국어학원 피델 까스뜨로 루쓰교실에 꾸바대사관이 도서들을 기증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외국어학원 피델 까스뜨로 루쓰교실에 21일 주조 꾸바공화국대사관이 도서들을 기증하였다.

이날 꾸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학원을 찾은 헤쑤스 델 로스 앙헬레스 아이쎄 쏘뚤롱고 꾸바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은 록음수업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았으며 교육사업에 도움이 되는 도서들을 피델 까스뜨로 루쓰교실에 기증하였다.

유엔아동기금 부집행국장 일행이 떠나갔다

샤넬 마리 홀 유엔아동기금 부집행국장과 일행이 21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군들과 주조 유엔아동기금 대표가 전송하였다.

총련의 방문단들이 떠나갔다

박영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과 조명호 교또조선중고급학교 교장, 장말려를 각각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이 21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조선중앙통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 창조되는 자랑찬 위훈, 아름다운 생활

아름다운 동해기슭, 눈부신 모래불이 십리나 된다고 하여 명사십리라 불리우는 갈마반도에서 새로운 건설기적이 일어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우리의 미더운 건설자들은 낮이나 밤이나 잠들줄 모르는 바다마냥 격랑쳐 설레이며 기적에서 더 큰 기적을 창조해간다.

시간마다 이룩되는 놀라운 공사실적도 좋지만 그속에 깃든 애국의 희열과 랑만, 투쟁과 생활은 또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 여기에 그 가지가지의 감동깊은 이야기들을 전한다.

현지보도반

명사십리전역에서 먼저 만난 사람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기적창조의 동음으로 부글부글 끓어번지는 불도가 니와도 같은 전역에서 과연 누구들을 먼저 만나야 건설자들의 보람찬 투쟁과 아름다운 생활에 대해 알수 있을것인가.

건설장을 찾은 우리의 이러한 《고민》을 풀어준 사람은 건설지휘부일군이였다.

《평양시려단부터 가보십시오.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자들이 역시 다릅니다.》

평양시려단은 건설장적으로 대상과제를 많이 맡고있는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별사회주의경쟁총화에서 우승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있다는것이였다.

각이한 형식의 건축물들이 기세좋게 솟구치는 건설현장에서 우리와 만난 려단지휘관들인 김정덕, 김용남, 차학민, 서광림동무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구상이 펼쳐지는 건설장에서 평양시가 앞장서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이라고 한사람같이 이야기했다.

당이 부른 새 기적창조의 격전장에서의 하루하루를 려단돌격대원들은 어떻게 맞고보냈는가.

지금은 그 모습을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지만 지난 1월 려단돌격대원들이 건설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이곳은 맵짠 바람이 휘몰아치는 수령관, 모래땅이였다.

깊은 밤 타오르는 우등불에 언밥을 녹여 시장기를 달랜 려단돌격대원들은 병실건설에 달라붙어 작업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쳤다. 그것은 질과 속도를 다같이 보장한 또 하나의 건설속도창조과정이였다.

《평양시려단부터 가보십시오.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자들이 역시 다릅니다.》

이처럼 보금자리를 든든히 마련한 려단에서는 기본작업에 진입하였다.

그때 모든 돌격대원들의 심장속에 고패친것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서 평양시가 앞장설데 대하여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뜨거운 믿음의 말씀이였다.

수도시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도 언제나 가슴부푸는데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서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자의 영예를 높이 떨쳐나가도록 걸음걸음 떠밀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믿음은 기적과 위훈을 낳는 위대한 힘의 원천이였다.

우리 조국의 동해기슭에 세차게 휘몰아친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자들의 투쟁기풍은 10여만㎡의 성토공사와 1만 4천여㎡의 기초콩크리트치기를 완성하고 그 기세로 크고작은 21개 대상의 골조공사를 보름 남짓한 기간에 결속하는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하게 하였다.

지금 건설장의 전구간이 그러하지만 평양시려단의 건설현장주변에도 수많은 나무들이 푸르싱싱하게 자라고있다. 아무리 파고파도 나오는것은 모래뿐인 명사십리전역에 그 나무들은 어떻게 튼튼한 뿌리를 내리였는가.

지난 3월 공사장에 수백그루의 나무들이 와닿았다.

그런데 당장 나무심기를 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 그냥 두면 나무들이 못쓰게 될수 있었다. 그날 밤 려단에서는 중대별로 나무함짜기전투가 벌어졌다. 수백개나 되는 나무함들을 만들어 거기에 나무들을 정성껏 심어놓은 돌격대원들…

려단의 어느 돌격대원을 만나보아도 바다가에 나무를 심을 흙이 없어 애타하던 못 잊을 추억을 간직하고있다. 모래에서 자라는 나무는 없는가고 누구나 안타까와하던 그때 화물자동차들이 나무심기현장에 와 멎었다. 적재함들에는 거무스레한 흙이 가득 실려있었다. 긴장한 수송으로 이틀낮, 이틀밤을 꼬박 밝힌 운전사들이 자진하여 이웃군에까지 가서 실어온것이였다.

나무심기과제를 끝내기 전에는 누워도 잠이 올것 같지 않다고 하며 다시 발동을 거는 운전사들,

모래속에 흙을 묻고 그우에 자래운 나무들은 자나깨나 수령의 뜻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려단의 돌격대원들의 고귀한 충정과 땀으로 하여 억센 줄기를 뻗치고 푸른 아지를 펼친것이다.

보이는것은 푸른 바다뿐, 뭐니뭐니해도 물이 귀한 갈마반도에서 하루에도 5번이상 물을 주며 나무를 가꾸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다 알수 없다.

물통을 나르느라 손바닥에 물집이 지고 나중에는 장알이 땅땅하게 박히였다. 하지만 물주기를 한번이라도 드티거나 물량을 조금이라도 줄인 사람은 없다.

어떤 대원들은 자기가 마시려던 물마저 아낌없이 나무에 부어주며 이렇게 속삭이였다.

《어서 자라거라. 이곳에 희한한 관광지구가 펼쳐지는 날 너의 푸른 아지를 자랑하거라.》…

지난 5월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건설장을 찾으시여 평양시려단이 맡고있는 대상공사에 대하여서도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보다 휘황한 새 설계도를 받아안게 된 평양시려단 지휘관들과 돌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충정의 맹세가 뜨겁게 불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수도 평양의 아들딸들인 우리들은 그 어떤 과업도 최단기간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기어이 수행하겠습니다.)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자들은 충천한 기세와 든든한 배심으로 공사의 날과 달을 자랑찬 위훈으로 빛내여가고있다.

명사십리전역의 혁신자들인 수도의 장한 아들딸들을 우리는 소리높이 자랑한다.

전투기록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으로 달려온 조선인민군 김영근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쌍둥이병사의 마음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으로 달려온 조선인민군 김영근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속에는 김국철, 김석철쌍둥이병사도 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들은 당이 부르는 돌격전에서 언제나 기수가 되라고 한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를 떠올렸다.

그들의 어머니인 리창옥녀성은 부모잃은 아이들을 데려다 친자식처럼 키워 조국앞에 떳떳이 내세운 훌륭한 녀성이다.

김국철, 김석철동무도 그렇게 자란 자식들이다.

이런 어머니의 당부를 늘 가슴속에 안고 사는 쌍둥이병사이기에 그들은 지금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 병사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다.

지난 5월초 어느날 쌍둥이병사의 발기로 그들이 속한 소대에서는 우물파기전투가 벌어졌다. 하여 잔디밭가까이에 우물을 파고 거기에 양수기를 설치함으로써 잔디밭관리를 보다 잘하게 되였다.

오늘도 김국철, 김석철쌍둥이병사는 어머니와 고향사람들의 당부대로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언제나 기수가 될 불같은 열의로 심장을 세차게 끓이고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는 병사들로부터 우리 사관장이라 불리우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김금일동무도 있다.

그는 건설장에 달려나온 첫날부터 어렵고 힘든 일의 맨 앞장에 섰으며 병사들의 친형이 되여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추운 날씨가 계속되던 올해 겨울 어느날이였다.

전투현장을 돌아보던 한 정치일군은 그가 작은 신발을 신고 불편하게 일하고있는것을 목격하게 되였다.

알고보니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전투를 벌리는 한 병사의 신발이 해진것을 보고 자기의 신발을 벗어주었던것이다.

병사들을 위하는 그의 진정에 감동된 정치일군은 막무가내로 그에게 자기의 신발을 벗어주었다.

불꽃튀는 전투가 벌어지는 건설장에서는 우리 병사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시간을 다투며 꽃펴나고있다.

이런 훌륭한 사관, 군관들이 있기에 우리 병사들은 언제나 영웅적위훈만을 창조해나가고있는것이다.

우리 사관장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

지난 2월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운전사들인 손창명, 최철광동무는 그날도 긴장한 수송임무를 수행하고있었다.

차가 원산시 칠봉리부근에 이르렀을 때였다.

어느 한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것을 발견한 그들은 더 생각할 사이없이 불붙는 집으로 뛰여들었다.

타래쳐오르는 불길속으로 서슴없이 뛰여들 때 그들의 머리속에 떠오른것은 설사 한목숨 바친대도 인민의 생명재산을 기어이 지켜내야 한다는 이 한가지 생각이였다.

집주인들을 무사히 구원하고 여러 시간에 걸쳐 불끄는 일을 돕느라 몹시 지쳤지만 그들은 또다시 수송길을 이어갔다.

인민의 생명재산을 지켜 한몸을 서슴없이 내댄 인민군병사들,

어느 소속부대 누구인가를 묻는 칠봉리사람들에게 그들은 한목소리로 말하였다. 우리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이라고.

혁명열, 투쟁열을 북돋아주어

사동구역의 녀맹일군들과 녀맹예술선동대원들

갈마전역에서 경제선동활동을 힘있게 벌려 건설자들의 심장에 혁명열, 투쟁열, 경쟁열을 북돋아주고있는 사상전의 기수들가운데는 사동구역의 녀맹예술선동대원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모든 선동을 더욱 격조높게 함으로써 대중을 로력적위훈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어느날 평양을 떠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으로 향한 녀성들이 있었다. 사동구역 휴암동 녀맹예술선동대원들이였다.

그들이 온 나라의 이목이 집중된 이곳 전투장으로 달려오게 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이들이 전투현장으로 떠나기전에 있은 일이다.

조명숙구역녀맹위원장은 구역당책임일군의 부름을 받았다. 그를 만난 자리에서 책임일군은 갈마전역을 다녀온 소감을 이야기하며 구역의 관록있는 동녀맹예술선동대가 현장경제선동활동을 벌린다면 건설에 떨쳐나선 전투원들에게 큰 힘을 주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이 사실이 구역안의 녀맹일군들과 동녀맹예술선동대원들에게 알려지자 모두가 흥분되였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소식에 접한 후 그들의 심장은 더욱 격동되였다.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부강조국건설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하자!

구역녀맹위원회에서는 지체없이 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토의하였다.

구역안의 동녀맹예술선동대들의 갈마전역에로의 첫걸음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휴암동 녀맹예술선동대가 첫 포문을 열었다. 현지에 도착한 즉시 숙소를 건설장가까이에 전개한 그들은 낮에 밤을 이어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대중을 크게 감동시켰다.

휴암동과 교대한 두루1동의 녀맹예술선동대도 뒤지지 않았다. 건설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화선선전, 화선선동을 벌려 전투장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들의 모범을 본받아 구역안의 동초급녀맹일군들과 녀맹예술선동대원들도 좋은 경험을 창조하였다.

송신3동 녀맹예술선동대원들의 경제선동활동이 실례로 된다. 이곳 녀맹예술선동대원들은 초급녀맹위원회의 지도밑에 사전준비에 품을 들이였다. 건설자들과 교감이 되면서도 그들의 심장을 울릴수 있는 노래와 시, 만담을 선정하고 가정일로 바쁜속에서도 분초를 아껴가며 기량을 높여나갔다.

그것은 곧 큰 실효로 이어졌다.

마를줄 모르는 샘처럼 노래면 노래, 만담이면 만담 등 무슨 종목이든 막힘없이 펼쳐놓아 건설장의 피끓새로 소문이 자자하게 난 전경희동무, 풍만한 화술기량과 노래로 건설자들의 사기를 높여준 조은주동무, 무게있는 저음독창으로 건설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임진옥동무…

그들은 아침일찍 붉은 기발을 휘날리며 경제선동을 진행하였고 건설자들에게 꽃목걸이와 꽃다발도 안겨주며 전투장이 충정의 열기로 끓게 하였다. 그들이 터치는 노래와 시, 선동연설은 그대로 대중의 심금을 울리며 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속에서도 경제선동을 벌려 건설자들을 크게 격동시킨 대장 정홍숙동무를 비롯한 선동대원들은 그들에게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도 안겨주어 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이런 날과 날속에 건설현장에서는 련일 새 기준, 새 기록이 창조되였다.

아름다운 꽃에는 그 꽃을 가꾼 훌륭한 원예사가 있기마련이다. 갈마전역을 끓게 하는 선동대원들의 위력한 경제선동성과는 그들을 위하는 구역안의 녀맹일군들의 뜨거운 진정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선동대원들이 현지로 떠날 때 집걱정을 하지 않도록 마음을 쓴 일이며 현장경제선동활동기간 그들의 가정을 자주 찾아가 생활형편을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운 사실…

언제인가 송신3동 초급녀맹위원장 김혜경동무는 전학을 떠나는 자식을 두고 걱정하는 한 선동대원을 위해 초급일군들이 부모를 대신하여 성의껏 준비품을 갖추어주도록 하였다. 깊은 밤이면 선동대원들의 옷과 신발을 빨아놓기도 하고 가정에서 비옷과 부식물을 비롯한 많은 지원물자를 마련해주기도 하면서 바친 초급일군의 진정을 한두마디의 말로 다 꼽을수는 없다. 구역안의 녀맹일군들의 이런 진정이 밑거름이 되여 녀맹예술선동대원들의 열의가 그토록 높았던것이다.

얼마전 두루2동에 이어 갈마전역에 나간 송화1동 녀맹예술선동대원들도 건설자들과 어깨를 겯고 함께 일하면서 경제선동을 벌려 그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비상히 고조시켰다.

돌격대의 자랑—부녀운전사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려단 김결동무와 그의 딸 김윤심동무

골조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다그치는 휘틀공이나 타입공도 좋고 벽체마다 물탈옷을 곱게 입히는 미장공도 좋다. 하지만 공사시작부터 마감까지 수많은 물동량을 쉬임없이 실어나르는 운전사들의 헌신을 떠나 어찌 건설의 성과적보장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으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열화같은 충정과 애국적열의에 의거하여 인민의 리상과 꿈을 꽃피우는 건설의 대번영기를 열어나가려고 합니다.》

드넓은 건설장을 줄기차게 누비는 자동차들가운데서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려단의 중량급화물자동차 《평양85-2203》호는 류달리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이 자동차가 건설장적으로 실동률이 높은데다가 차의 주인들인 김결, 김윤심동무가 부녀간이기때문이다. 아버지 김결동무가 속도전청년돌격대에서 수십년간 수송길을 달려온 공훈운전사라면 그의 딸 김윤심동무는 지난해 여름에 운전사자격을 받은 22살의 처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아버지와 딸이 교대운전사가 되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으로 진출하던 날 김결동무는 우람한 자동차를 기운차게 몰아가는 딸의 모습을 보며 흐뭇함을 금치 못했다.

집안의 맏딸인 김윤심동무는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속도전청년돌격대에서 회계사업을 맡아보는 참모로 복무했다. 그런데 문득 김결동무가 자기처럼 중량급화물자동차를 모는 운전사가 되지 않겠는가고 하였을 때 그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 황미선녀성도 회계일에 한창 재미를 붙이고있는 애한테 무슨 생뚱같은 소리인가고 하며 펄쩍 뛰였다.

《공사속도는 물동량수송에 의하여 보장된다. 아버지는 숱한 운전사들을 양성했지만 제 자식 하나 운전사로 키우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나라의 기념비적건축물들을 일떠세우는데 건설자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온 아버지의 진정은 딸의 심장을 끝끝내 울리고야말았다.

콤퓨터와 전자수산기밖에 다루어보지 못한 어린 손에 중량급화물자동차의 운전대를 잡은 김윤심동무는 아버지의 협조원으로 려명거리건설에 참가하였으며 오늘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 당당한 운전사로 나선것이다.

지난 4월 어느날 밤 수송을 마치고 돌아온 김윤심동무는 자기 차의 붉은 줄이 제일 높이 치솟은 경쟁도표앞에 한참이나 서있었다. 남다른 긍지가 온몸을 휘싸안았다. 이때였다. 아버지의 부름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무거운 배낭을 진 아버지가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서있었다. 예비부속품때문에 걱정하더니 휴식도 미루고 먼길을 다녀온것이였다.

김윤심동무는 얼른 달려가 아버지의 배낭을 받아들었다.

새날이 밝도록 부속품들을 교체하고 차의 기술상태를 깐깐히 살펴본 아버지와 딸!

이런 날들이, 남모르게 바친 헌신의 땀이 그들을 건설장이 자랑하는 부녀운전사로 되게 한것이다.

얼마전 수송길에서 김윤심동무는 한 중량급화물자동차가 깊은 진창에 빠져 오도가도 못하고있는것을 발견하였다. 차에는 골재가 가득 실려있었다. 그 차앞에 자기 차를 가져다세운 김윤심동무는 견인바줄을 찾아들고 뛰여내렸다.

고마운 운전사가 나타났다고 기뻐하던 건설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운전사가 뜻밖에도 처녀였던것이다. 그가 꽤 골재차를 끌어내겠는가고 념려하는데 처녀운전사가 모는 화물자동차는 수십t급의 골재차를 진창속에서 씽하니 끌어내였다. 건설자들은 환성을 올리며 달려와 말했다.

《처녀동무, 바쁜 길에 도와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이 사실이 공사장에 널리 알려졌을 때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김결동무이다.

《잘했다. 이 공사장에서야 어디 바쁘지 않은 차가 있느냐.》라고 하며 딸의 등을 대견스레 두드려주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우리는 생각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건설장, 여기에 꽃피는것은 단순히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구치는 위훈의 소식만이 아니니 참된 로동계급의 대, 애국의 대가 억세게 이어지고있는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자랑이며 아름다운 화폭인가.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어머니의 권리를 통해 본 두 사회제도

수도 평양의 문수지구에 아기들의 궁전인 평양산원이 솟아있다. 자애로운 어머니품을 형상한 이 기념비적건축물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이 땅 어디에나 흘러넘치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되새기군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의 념원과 지향을 실현하는 길은 사회주의길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락원이라면 자본주의는 인민대중의 무덤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는 사람들이 다름아닌 어머니들이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그런 삶을 더없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여긴다. 이른아침이면 자식들의 외모에 자그마한 구김이라도 있을세라 남모르는 지성을 다하고 일터에서 돌아온 저녁에도 자식들의 지식을 폭넓게 다져주느라 하루일의 피로도 다 잊고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우리의 어머니들.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바칠 권리를 어느 사회의 어머니들이나 다 누릴수 있는것은 아니다. 비록 어머니는 되였어도 자식을 마음껏 위하고 사랑할수 없게 하는 사회, 제가 낳은 피덩이같은 자식도 서슴없이 쓰레기통에 버리게 만드는 사회가 다름아닌 자본주의사회이다.

일본이 바로 그 대표적인 나라의 하나이다. 일본의 한 녀성은 태여난지 불과 10분도 되나마나 한 갓난아기를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돈이 없기때문에 키울 자신이 없어 그렇게 하였다고 실토하였다. 일본의 어느 한 현에서는 한 녀성이 2명의 딸을 질식시켜 죽였으며 다른 현에서도 한 녀성이 자기 자식들을 모두 살해하였다.

일본에서는 낮은 수입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의 70%이상이 녀성들이다. 그들은 눅거리일자리마저 메울가봐 늘 가슴을 조이며 살고있다.

요행 일자리를 얻었다가도 이러저러한 리유로 하여 남성들보다 먼저 해고되기가 일쑤이기때문에 많은 녀성들이 어머니가 되는것을 꺼려하고있으며 어머니로서의 신성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있다.

여러해전에 일본에서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성인녀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데 의하면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녀성들이 근 절반이나 되였다. 특히 젊은 녀성들속에서 자식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비률이 더 많았다고 한다. 20대녀성의 68%, 30대녀성의 61.4%가 자식을 가지는것을 큰 부담으로 여기고있다. 이에 대하여 조사자료는 자녀교육비, 치료비증가 등으로 앞날에 대한 녀성들의 불안감이 커진데 원인이 있다고 전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녀성들의 해산비는 최고 1만US$이며 산모의 하루입원비는 최고 1200US$, 갓난아기의 하루입원비는 1400US$에 달한다고 한다. 보잘것없는 수입으로 제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녀성들에게 있어서 병원에서의 해산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당장 해산을 앞둔 임신부들이 병원에서 문전거절을 당하여 한지에서 해산하는 비극이 수시로 벌어지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녀성들이 자식을 낳아 키우는것을 두려워하는것은 결코 치료비때문만이 아니다.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돈이 없으면 학교문전에조차 세울수 없는것이 자본주의나라들의 현 실태이다.

일본에서는 수업료가 국립대학인 경우 년간 71만 7600¥, 사립대학은 117만¥에 달한다고 한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해마다 120여만명의 고등학교학생이 학비를 물지 못해 중퇴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비는 계속 불어나고있다고 한다.

하늘높은줄 모르고 껑충껑충 뛰여오르는 학비는 자식들을 잘 키워보려는 어머니들의 소중한 꿈을 사정없이 짓밟고있으며 그와 같은 랭혹한 현실은 어머니들을 비판과 절망속에 몰아넣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새 학년도를 앞둔 달은 절망에 빠진 어머니들이 제 자식을 죽이는 달로 되고있다.

유럽의 한 녀성은 돈이 없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수 없게 되자 1살부터 8살까지의 아들 4명을 제손으로 죽이고 기절하였다고 한다. 애지중지하던 제 자식을 목눌러죽인 한 부부 역시 살인동기에 대하여 학비난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낼수 없게 되였기때문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어머니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식을 부담으로 여기는 부패한 사회풍조는 한도를 넘어 철부지 어린것들에 대한 학대행위로까지 번져지고있다.

일본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의 《교양》이라는 미명하에 고통을 받고 부모들의 동물적폐락의 대상으로 숨이 지는 현상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있다. 한 부부는 3살 난 아들을 토끼장에서 키우다가 질식시켜 죽였으며 또 어떤 녀성은 아이를 빵구이로에 넣고 뜨거운것을 리해할수 있는가를 시험해보려고 했다고 거리낌없이 뇌까렸다. 지어는 2살 난 어린 자식을 끓는 물속에 잡아넣고 희극배우의 모습을 련상하며 히히닥거린것과 같은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비인간적인 사실들도 있다.

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첫 교양자인 어머니들의 모습에는 이렇듯 해당 사회의 본태가 력력히 비끼게 되는것이다.

어머니들이 사랑의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며 자식들을 훌륭히 키울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된 사회주의사회야말로 근로대중의 지향과 념원이 꽃피는 인민의 락원, 행복의 보금자리이다.

본사기자 허명숙

《우리에게 밝은 세상을 되돌려달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주의제도는 반인민적인 사회제도이며 가혹한 착취제도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성격을 정확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밝은 세상을 되돌려달라》, 이것은 1990년대말 사회주의가 좌절된 어느 한 나라 출판물에 실렸던 글의 제목이다.

필자는 그 나라의 한 력사학자이다. 그는 자기의 글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후 사회가 얼마나 험악하게 변질되여가고있는가를 생동한 실례를 들어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복귀된 나라들에서는 두 부류의 새로운 인간들이 나타났다는것이다. 하나는 입에 풀칠조차 못하고 굶어죽어가는 새 빈민들이고 다른 하나는 사기와 협잡으로 억대의 재부를 모아들인 끝에 자기 나라와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거액의 돈을 뿌려 귀족작위를 사들이는 새 부르죠아지들이다.

그런가하면 어떤 나라의 텔레비존에는 팔에 주사바늘을 꽂은채 길바닥에 쓰러져 숨진 한 사나이의 처참한 모습이 방영되여 사람들을 아연케 하였다. 그는 피라도 뽑아서 기울어져가는 살림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었던것이다.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동유럽나라들에서 극빈자로 전락된 사람들은 말할것도 없고 지난 시기 사회주의에 대해 불평불만을 품었던 지식인들과 청년들까지 자본주의의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앞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참으로 행복하고 존엄높았던 사회주의시기의 생활을 눈물겹게 추억하면서 《우리에게 밝은 세상을 되돌려달라.》고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우리에게 밝은 세상을 되돌려달라!

이 피타는 절규는 사회주의야말로 인간의 삶과 행복을 담보하는 요람이며 자본주의는 사람 못살 생지옥이라는것을 새겨주고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인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지키는데 우리의 삶도, 운명과 미래도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우리 제도를 노리는 원쑤들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

본사기자

천년숙적 일제와 기어이 결산하여 쌓이고쌓인 원한을 풀고야말 결의에 넘쳐있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리충성 찍음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존엄높은 불패의 강국

지금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영광의 만리길이 펼쳐지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은 가장 빛나는 승리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고있다.

력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오직 자기힘, 자기 식으로 나라의 국력을 백방으로 다져온 주체조선은 오늘 더욱 거세찬 활력으로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힘찬 전진을 담보하는 거대한 힘은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이다. 남들같으면 상상도 못할 중중첩첩의 시련과 난관을 뚫고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펼쳐놓은 거창한 현실이기에 세계의 찬양의 목소리는 더욱 높다. 세상사람들은 비상히 높은 전략적지위를 차지하고 세계의 중심에 솟구쳐오른 주체조선을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고있다.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인민만이 모진 난관을 이겨내며 부강번영의 길을 활짝 열어나갈수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상과 신념, 동지적사랑과 의리로 굳게 결합되고 온 사회가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대가정이 되여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있습니다.》

령도자와 인민이 사상과 뜻, 정과 의리로 굳게 뭉친 강국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오늘 이 땅우에 이룩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수령, 당, 대중의 위대한 일심단결, 혼연일체가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이다.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조선혁명을 사소한 침체와 답보도 없이 힘차게 전진시켜온 추동력,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고 역풍을 순풍으로 돌려세운 강위한 힘은 바로 우리의 일심단결이다.

인민에 대한 령도자의 숭고한 사랑과 믿음, 뜨거운 열과 정은 우리 인민을 혼연일체의 대오로 굳건히 결합시키는 생명수이며 자양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적복무는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천만군민의 절대불변의 신념을 낳았고 온 나라를 하나의 혈맥으로 굳게 이어놓았다.

수령과 전사, 령도자와 인민이 동지적사랑과 의리, 혈연적뉴대로 결합되여있으며 온 사회가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목격한 세상사람들은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은 그 어떤 산수적결합이 아니라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생명체처럼 한몸을 이루는 유기체식결합이라고 하면서 이런 운명공동체를 깨칠 힘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격찬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도 령도자는 민중을 끝없이 사랑하고 민중은 령도자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공화국의 놀라운 현실은 동지애의 위력,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은 무한대이라는 진리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고 칭송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고 원수님께 기쁨드릴 오직 한가지 생각으로 삶의 순간순간을 빛내이는 천만군민의 충정은 이처럼 세상사람들을 경탄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천만군민의 신뢰심은 하늘에 닿고있으며 우리의 혼연일체의 위력은 천백배로 강화되고있다.

일심단결이야말로 우리의 국력중의 제일국력이며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꿋꿋이 계승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공화국이 세세년년 강성번영하는 길이 있다. 일심단결의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더욱 빛내여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다.

우리 공화국이 겹쌓이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승승장구하고있는것은 천만군민이 사회주의와 운명을 함께 하기때문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였다.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신념은 사회주의를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는것이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행복의 요람이며 삶의 터전이다.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값높은 삶을 마음껏 누리려는 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은 오직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가 최대로 실현되는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만 참답게 꽃펴날수 있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자신이 선택한것이다. 모든 정책작성과 집행에서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고 사회의 모든 재부들이 철두철미 인민의 복리증진에 돌려지고있으며 인민들이 참다운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의 출발점도 인민의 리익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로선과 정책도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으로 일관되여있다. 조국땅 그 어디서나 울려퍼지는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는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영원히 자기 당과 제도만을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심장의 목소리이다. 준엄한 나날에나 순탄한 나날에나 전체 인민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고마운 제도, 온 나라에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정신이 공기처럼 흐르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바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제도는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마련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의 운명은 자신들의 운명과 하나로 결합되여있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 참다운 삶과 행복이 꽃펴난다는 자각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순간의 답보나 한걸음의 후퇴도 모르고 오직 앞으로만 전진해나갈수 있게 하는 사상정신적원천이다. 우리 인민은 자기들의 모든 꿈과 리상이 빛나는 현실로 꽃펴나는 사회주의조국을 끝없이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받들어나가고있다.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는 위대한 령도자의 인민사랑의 세계에서 천만군민은 주체의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의 생명이고 억척불변의 신념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책에서가 아니라 실생활을 통하여 체득하였기에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고있다. 인민들의 마음속에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바로 여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과 불패성이 있으며 승승장구하는 근본비결이 있다.

우리의 생명인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천만군민의 혁명적의지와 정신력은 날로 더욱 억세여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이 땅우에 기어이 인민의 락원, 천하제일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허 영 민

인류자주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

여러 나라에서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4돐에 즈음하여 앙골라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에 대한 독보회가, 적도기네와 이란, 만마에서는 친선모임, 도서 및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가, 슬로베니아에서는 강연회가 7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당창건기념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적도기네민주당 국제부 부부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령도자께서 인류자주위업실현에 쌓아올리신 거대한 업적을 높이 칭송한다.

선대수령들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김정은각하의 세련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사회주의건설,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선도해나가는 백전백승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으며 오늘날 조선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 나라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축원한다.

이란이슬람교련합당 국제사업담당 부총비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현명한 령도아래 조선로동당은 하나의 사상으로 굳게 결속된 불패의 정치적참모부로 튼튼히 다져졌다.

걸출한 수령들을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지난 시기 나라의 발전과 통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실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는 탁월한 령도력과 뛰여난 외교지략으로 나라의 번영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계신다.

또 한분의 위인을 모시고 투쟁하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에게 굳은 련대성을 보낸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4돐에 즈음하여 메히꼬, 파키스탄에서는 경축집회가, 벌가리아에서는 업적토론회가, 로므니아, 앙골라에서는 영화감상회가 7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번영하는 평양》을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메히꼬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백전백승의 강철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조선을 불패의 강국으로 전변시키였다, 그이의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고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카라치지부 서기장과 여러 인사들은 비범한 사상리론활동과 현명한 령도로 시대와 력사앞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당건설령도업적을 격찬하고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모신 조선로동당은 자기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벌가리아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하시면서 조선로동당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당, 인민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투쟁하는 강위력한 당으로 건설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은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사회주의집권당건설의 본보기를 마련하신 김정일동지를 가장 걸출한 령도자로 높이 칭송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청년조직 국제비서는 독창적인 선군혁명령도로 우리 공화국을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였다.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성근한 과거청산에 일본의 미래가 있다

최근 뉴욕의 맨하탄에 건립되였던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이 미국회청사에 순회전시되였다.

이 순회전시를 파탄시키려고 일본이 집요하게 방해책동을 벌리였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은 목적했던 자리에 끝끝내 전시되였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거짓과 부정의는 항상 패한다는것을 다시한번 실증해주었다.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성노예범죄를 로골적으로 부정하고있다.

국가의 관여를 부정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한짓이라고 하던 궤변마저 집어던지고 성노예들이 《돈을 바라고 자발적으로 한 행위》라고 떠들면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통채로 떠넘기고있다.

매국노 박근혜역도와 맺은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라는것을 전면에 내걸고 간악무도한 성노예범죄가 다 청산된것처럼 선전하고있다.

일본이 간특하고 뻔뻔스럽게 놀아댈수록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은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성노예범죄를 폭로하는 움직임은 국제적범위에서 나날이 확대되고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미시간주, 죠지아주에도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이 세워졌다.

도이췰란드남부 바이에른주와 카나다의 토론토에도, 중국 홍콩주재 일본총령사관 부근에도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이 설치되여있다.

곳곳에 세워진 일본군성노예소녀상들은 특대형반인륜범죄를 덮어버리려고 획책하는 일본의 죄상을 만사람에게 끊임없이 폭로하고있다.

일본은 과거죄악을 덮어버릴수도 없고 그 책임에서 벗어날수도 없다. 또한 다른 나라 인민들의 피로 얼룩진 범죄의 력사를 뒤바꿀수도 미화분식할수도 없다.

일본이 과거력사를 외곡부정하는것은 죄를 덧쌓는 행위이다.

과거죄악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저히 배상하는것만이 일본이 살길이다.

아베정권이 진실과 정의의 목소리를 말살하려고 폭압의 칼바람을 일구는 속에서도 정당한 주장들이 울려나오고있다.

최근 일본에 있는 《식민지력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 사무국장 야노 히데끼가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뿐만아니라 조선의 분렬에도 책임이 있다. 조선에 대하여 응당 일본정부는 제대로 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국제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여러가지 원인이 작용하지만 조선반도분단의 연원은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있다, 조선사람들이 일본때문에 큰 피해를 보았다는것을 일본인들은 알아야 한다, 일제강점시기에 감행된 인권유린만행에 대해 알아야 한다, 현재 아베정권은 과거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에 대해 못된짓만 하고있다, 그러한 사실을 일본사람들은 모르기때문에 이를 알리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아베정권의 방해공작을 막는것이 일본시민으로서의 책무이다고 언론에 밝히였다.

그의 주장은 부정할수 없는 진실이다.

일제는 판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전대미문의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국토를 병탄하고 우리 민족을 노예화하였다.

수십년간의 식민지통치기간 일제가 강행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은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야만적인것이였다.

840만여명의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판과 공사장들에 내몰았으며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살륙하였다.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화하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다. 우리의 말과 글 지어는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없애버리려고 간악하게 날뛰였으며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부들과 우리 나라의 풍부한 자연부원을 닥치는대로 파괴, 략탈하였다.

조선민족의 가슴에는 일제식민지통치의 수난기에 침략자에 의하여 강요된 불행과 고통의 뼈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는 원한의 응어리로 남아있다.

조일관계가 오늘까지 적대관계로 남아있는것은 일본이 과거죄악을 청산하려 하지 않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일본이 격변하는 현실에 따라서려면 과거죄악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인정하고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 성근한 과거청산에 일본의 미래가 있다.

리 효 진

남조선에서 공고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요구

남조선에서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광범하게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의 평화초불추진위원회는 지난 9일 1000여명의 참가밑에 전쟁종식과 평화를 위한 초불집회를 가지였다. 평화초불추진위원회는 전쟁을 반대하고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는 남조선의 8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모여 구성된 단체이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채택으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의 새시대가 열렸다고 하면서 모두가 평화와 통일을 위해 생각하고 말하고 실천하고 련대하자고 강조하였다.

이보다 앞서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를 비롯한 통일운동단체들은 서울에서 민족자주통일대회를 열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철회와 조미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였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담긴 공개서한을 미국대사관에 전달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420여개의 단체들도 공동기자회견, 시민통일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평화실현을 위해 투쟁해나갈것을 다짐하였다.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그들은 전쟁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계속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최 진 향

절대로 피할수 없는 민심의 준엄한 징벌

전대미문의 특대형범죄행위들을 저지르고 법정에 선 리명박, 박근혜역도가 아직도 자기들의 죄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만방자하게 놀아대고있어 남조선 각계를 극도로 격분케 하고있다.

리명박역도가 지난 5월에 있은 자기에 대한 첫 공판당시 표표한 낯짝으로 나타나 《도저히 리해할수 없다.》느니, 《충격》이니, 《모욕》이니 하고 생주정을 하면서 모든 범죄혐의들을 다 부인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죄악을 폭로한 증인들을 《정신병자》로 몰아대는 추태까지 부린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때 역도는 민심에는 아랑곳없이 배짱놀음을 하며 다음번공판부터는 나오지 않겠다고 나자빠졌었다.

법원측이 리명박에 대한 2차 공판날자를 정하고 재판정에 출두할것을 요구하였지만 역도는 그 무슨 《건강상리유》라는 잡소리를 줴치며 끝내 재판에 나오지 않고 버티였다. 결국 5월 28일로 예정되였던 2차공판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법원측은 리명박의 망동을 재판을 회피하는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하고 역도에게 무조건적인 출두를 요구했다. 법원의 강한 압력에 못이겨 역도는 지난 6월 4일 재판정에 나오지 않을수 없었다.

문제는 이날에도 리명박역도가 낯짝을 빳빳이 쳐들고 시종도전적인 자세로 일관한것이다. 역도는 반성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건강하지 못한 몸》을 숨기고 살아왔지만 구치소에 들어오니 《감출수가 없다.》느니, 치료를 받으면 좋겠지만 《특별대우를 했다는 여론이 생길것 같다.》느니 하고 노죽을 피우면서 마치 자기 건강에 큰 이상이나 생긴듯이 역겹게 놀아댔다. 도곡동토지매각사건, 다스회사사건 등 범죄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독기어린 상판을 해가지고 《내가 땅을 살데가 없어서 그곳을 사겠는가.》, 《그런 기억이 전혀 없다.》고 제편에서 떠대를 돌구면서 실로 철면피한 망동을 부리였다. 그리고 엄살을 피우면서 《더이상 법정에 서있지 못하겠다.》고 생떼질을 했다.

리명박역도의 이런 후안무치한 추태는 사람들을 다시한번 경악케 했다.

박근혜역도도 자기가 저지른 만고죄악에 대해 속죄할 대신 계속 민심을 조롱하며 파렴치하게 처신하여 인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고있다.

지난 8일 박근혜역도에 대한 민사소송에 따른 첫 재판이 열리였다. 이것은 《국정룡단》사건으로 인한 정신적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에 따른것이다. 그런데 역도는 뻗치기를 하면서 재판정에 끝내 낯짝을 내밀지 않았다. 그리고는 변호사를 내세워 《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권력행위》라느니,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느니 하고 생억지를 부리였다. 남조선인민들이 《죄값을 똑바로 치르라.》고 웨치며 엄한 시선으로 지켜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역도는 해괴망측한 추태를 부리며 열백번 허물을 벗어도 변할수 없는 암독사의 본색을 또다시 드러낸것이다.

리명박, 박근혜역도가 특급범죄자로 재판에 기소된것은 역적들이 저지른 온갖 죄악에 따른 응당한 대가이다. 사기와 협잡으로 돈을 긁어모으고 권력을 악용하여 제배를 채운 리명박, 박근혜역도의 죄행들은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는 반인민적악행의 극치이다. 반역《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파쑈적망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국정》을 롱락하며 사회를 파국과 혼란속에 빠뜨린 그 죄악은 또 얼마나 큰것인가.

리명박, 박근혜역도로서는 저들이 저지른 특대형범죄행위들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죄하며 스스로 벌을 청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뭉지처참해도 씨원치 않을 범죄자들이 분노한 민심의 눈초리가 집중되여있는 법정에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그 모든 죄악들을 조목조목 부인하며 뻔뻔스럽게 놀아대고있으니 이야말로 초불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 아닐수 없다.

천벌을 받을 죄를 짓고도 꼬물만 한 반성도 없이 오히려 력사의 심판에 도전해나서는 리명박, 박근혜역도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파렴치한, 한조각의 량심도 없는 인간추물들이다. 이런 천하역적들은 추호의 자비도 없이 엄벌에 처해 민심이 무섭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더우기 남조선 각계의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의 보수패거리들이 《리명박의 범죄혐의에 동의할수 없다.》느니, 《리명박과 박근혜가 공동의 적에게 침해당하고있다.》느니,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보복》이라느니 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역적들에 대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막아보려고 발악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이 리명박, 박근혜역도를 계속 비호두둔하고있는것은 역적들과 한속통이며 공범자인 저들의 더러운 정체를 드러내놓는 추악한 망동이며 민심의 적폐청산요구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리명박, 박근혜역도와 공모하여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패당에게 인민들은 이미 사형선고를 내렸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리명박, 박근혜역도는 물론 파멸의 위기를 모면하고 과거의 암흑시대를 되살리려고 발악하는 보수패당을 력사의 구렁텅이에 모조리 처넣고 깨끗이 박멸해버리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라 설 하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8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의 출판보도물들 특집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8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의 출판보도물들이 14일과 15일에 특집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신문 《포름》, 인터네트홈페지들인 《오늘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빠뜨리오띄 모스크바》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2000년 6월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이 채택된데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인터네트신문, 홈페지들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조선통일운동사에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은 김정은각하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조선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시려는 김정은각하의 세련된 령도로 하여 조선반도에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방글라데슈신문 《데일리 인다스트리》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우리 민족끼리는 김정일령도자께서 6.15북남공동선언에 명문화하도록 하신 조선통일의 기본리념이며 선언의 근본핵이다.

나라의 통일문제를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시종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립장이였다.

김정일령도자의 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이어나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여 조선의 통일은 반드시 이룩될것이다.

캄보쟈의 아까떼통신,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 《주체아프리카》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김정일령도자의 숭고한 조국통일사상이 안아온 결정체이라고 하면서 6.15북남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조선반도에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데 대하여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적극화되고있는 지역적협조움직임

아프리카나라들이 지역적통합과 협조를 강화하고있다.

얼마전 세네갈의 다까르에서 제6차 아프리카동맹 상급회의가 진행되였다. 수십개 나라 무역상들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는 끼갈리협정을 리행하기 위한 보충의정서들을 채택할 목적으로 진행되였다.

지난 3월 르완다의 수도 끼갈리에서 진행된 아프리카동맹 특별수뇌자회의에서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창설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44개의 아프리카동맹 성원국 대표들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은 12억명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한 무역시장이 생겨난다는것을 의미한다. 관세장벽들을 없애면 대륙나라들사이의 무역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끼갈리협정이 체결되였지만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운영하자면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번 아프리카동맹 상급회의에서는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창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론의되였다. 그 과정에 채택된 여러건의 보충의정서들은 다음달에 열리는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에 제출되게 된다고 한다. 보충의정서들에는 아프리카나라들이 지켜야 할 무역활동의 규범과 규칙 등이 반영되여있다.

아프리카동맹 무역 및 공업담당위원은 자유무역지대창설은 아프리카통합실현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거대한 시장은 무역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조성하며 특히 아프리카의 미래인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프리카동맹위원회 위원장은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창설에 관한 협정의 조인이 대륙의 통합과 단결을 위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전진으로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케니야대통령은 대다수 아프리카동맹 성원국들이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창설에 관한 협정을 빨리 받아들이게 된것은 아프리카인들이 공동의 리익을 위해 단결하는것이 더없이 중요하다는것을 인식하였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아프리카나라들이 대륙적인 범위에서 자유무역을 활성화하는 과정에 보다 훌륭한 미래를 위해 단합할것을 호소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은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동아프리카공동체, 서아프리카국가경제공동체,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 동부 및 남부아프리카공동시장을 비롯하여 일정한 지역규모에서 경제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들이 창설되였다. 하지만 아프리카나라들사이의 무역은 원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주요하게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경제적지반이 미약한것과 관련되여있다. 이로부터 아프리카나라들은 여러 계기를 통해 대륙적인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여 아프리카대륙의 무역을 적극 발전시키고 그것을 추동력으로 하여 부흥하는 아프리카를 일떠세우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륙적인 자유무역지대창설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그 리행을 위한 보충의정서들이 이번에 또다시 채택된것은 단결하고 협력하여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아프리카를 건설하려는 대륙나라들의 한결같은 의지의 발현이다.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발굽밑에 짓밟혀 《암흑의 대륙》, 《수난의 땅》으로 불리웠던 아프리카대륙은 지역인민들의 노력에 의해 나날이 변모되고있다.

단결과 협조정신을 발휘하여 사회경제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아프리카나라들의 노력은 응당한 결실을 맺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수 진

중국 호북성에서 옛무덤들을 발견

중국의 호북성 형문시에서 최근 210여기의 신석기시대 무덤이 발견되였다.

그중 면적이 10㎡이상 되는 무덤이 5기 있다. 전문가들은 장강류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무덤들중 가장 큰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에 발견된 무덤들은 당시 장강중류지역의 종족, 풍속 등을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될것이라고 한다.

로씨야에서 운반로케트 발사

로씨야가 17일 《쏘유즈-2.16》운반로케트를 쏴올렸다.

쁠레쎄쯔크우주발사장에서 발사된 운반로케트에는 《글로나쓰-M》위성이 탑재되여있었다고 한다.

이 나라 국방성 공보국이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려객선침몰사고로 인명피해 발생

인도네시아 북부쑤마뜨라주의 또바호에서 18일 려객선침몰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로 20일현재 177명이 행방불명되였다고 한다.

운수성의 한 관리는 3명의 녀성이 죽었으며 18명이 무사히 구원되였다고 밝혔다. 수십명의 구조대원들과 경찰들을 태운 여러척의 배가 사고현장과 주변수역에 전개되여 피해자들에 대한 수색 및 구조작업을 진행하고있다.

테로공격으로 피해

아프가니스탄의 난가르하르주에서 16일 테로공격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날 주소재지 잘랄라바드시의 교외에서 집회도중에 일어난 승용차자폭공격으로 26명이 죽고 54명이 부상당하였다.

이 테로공격은 국제테로조직인 《이슬람교국가》의 한 성원이 단행한것이라고 한다.

산사태

만마의 만달레이주에서 14일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무더기비에 의한 산사태로 이날현재 5명이 목숨을 잃고 3명이 부상당하였으며 여러채의 살림집이 파괴되였다.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소개시키고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등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조선중앙통신】

ㄱ-181098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륜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